

고민하기 / 이야기하기 / 펼치기

일반 자료실		
분류번호	분류기호	자료번호
	B-4	16

책 열철 페이지와

여성

1996

주최 : 제1대 학술위원회

후원 : 이화여대 제28대 총학생회

고민하기 / 이야기하기 / 펼치기

그림책의 철학과

여성

주최 : 제1대 학술위원회

후원 : 이화여대 제28대 총학생회

***** 목 차 *****

1. 최세진 씨 원고문
2. 이은정 씨 원고문
3. 이 혁 씨 원고문
4. 정보를 공유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 한 문화 평론가의 '네티즌 공동체' 꿈꾸기 (정성철)
5. Copyleft by 김형준(PC통신 참세상)
- 정보운동이란 무엇인가?
6. 김형준 (바른정보 대표)
- 정보화사회와 시민운동
7. 제 3회 정보통신 토론회
- 정보화 사회와 여성

고민하기 / 이야기하기 / 펼치기

-최세진 씨 원고문

- 검열과 여성
- 검열 일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검열과 여성

검열은 항상 음란물로부터의 청소년과 여성 보호를 그 선두로 하여 주장되고 진행된다. 영화와 서적에 대한 검열이 그랬었고, 현재 진행되는 비디오에 대한 검열이 그렇고, 만화에 대해서도 그런 이유와 논리로 검열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검열의 선두에는 음란물 차단이 앞장서고 있고, 미국에서 올해 논란이 되었던 통신법 위법 또한 마찬가지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간 여성계에서조차도 검열에 대하여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반여성적인 텍스트에 맞설 수 있는 유용한 방어막 정도로 판단해왔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검열에 대한 여성들의 본격적인 고민과 발언은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검열이 늘상 내세우는 '음란물 단속'은 단지 과장된 광고문안일 뿐이다. 실제로 검열은 여성과 청소년, 사회적 약자,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사회체제의 강제적인 안정과 사회정치적인 일탈 방지를 목적으로 그들의 각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연출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사회체제의 강제적 안정에는 현재의 가부장제에 대해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검열이 내세우는 '음란물 차단'이라고 하는 과장.광고와, 광고 밑에 조그맣게 새겨놓고 있는 '불순한 사상으로부터 국가의 안위 보호'라는 경고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검열은 필요악이다' 혹은 '올바른 검열을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검열에 대한 대안은 완전한 검열철폐일 뿐, 결코 검열의 안정적 혹은 효과적 재구성이 아님을 주장하려 한다.

● 검열 일반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검열의 대상은 문제성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폐쇄적이고, 정치적으로 비민주적인 국가일수록 검열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그것은 선진국에 비해 제 3세계 국가들이 심한편이며, 특히 정보통신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을 국민 일반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형성되어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아직 개도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국가에서 아주 뚜렷하게 그 특성이 나타난다(예전에 4마리 용으로 불리던 국가는 거의 이에 해당하며, 한국과 싱가포르의 최악의 상황이다).

이때 검열은 주로 국민들에 대한 우매화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억누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즉, 검열은 문제성있는 정보때문이 아니라, 자국 국민의 외부 정보에 대한 차단과 정치적 무지의 확산을 위해 실행되는 것이다.

또한 검열은 소수의 특수계층이 사용하는 미디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미디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용이해지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예전의 비디오와 초기 정보통신에 대해 떠올리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연히 문제성 있는 정보에 대한 차단이 검열의 목적이라면 그 사용자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 논리에 맞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검열의 대상이 정보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며, 그 목적은 문제성이 있는 정보를 차단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외부의 정보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열을 단지 제도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공연윤리위원회'나 '정보윤리위원

회' 등의 기관이나, '영화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없어진다고 해서, 혹은 수정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검열은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검열은 그 대상 정보나 제도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닌 현 사회의 정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2. 검열은 사회, 정치, 문화적인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다.

검열의 1차적인 효과는 국민일반에 대한 사회일탈적인 개별 정보의 차단이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검열의 효과는 '은폐'이다. 검열은 '음란물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나고, 좌익사범들의 유인물 때문에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그런가?

각 대형통신서비스마다 성인전용방이란 곳을 통해서는 여성의 누드가 '합법적으로' 도배되어 있고, 가판대의 스포츠 신문에서 늘상 헤드라인에 '합법적으로' 여성의 관능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검열은 '음란물 유통을 막아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가?

얼마전 유럽과 미국의 몇몇 곳에서 유아 강간범, 제법 위험이 현저한 강간범에 대하여 호르몬 주사를 놓는 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강간범에 대한 형량 강화로서 환영할만 하지만, 강간을 사회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단지 개별 남성의 호르몬 분비의 문제로 축소시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때 검열의 역할은 전자의 긍정적 의미보다는 확실히 후자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성상품 속에서 - 음란물이 반여성적인 텍스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검열은 반여성적인 문화와 상품에 대한 효과적 방어막일 수 없으며, 단지 사회정치적인 문제로서의 여성문제를 '음란물'의 문제로 은폐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더 나아가 검열은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합법적인 성상품과 음란물로 이중적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음란의 기준이 반여성적인 텍스트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통해 검열은 '합법적으로' 성상품을 유통시키기위한 가장 유용한 틀이 된다. 즉, 결코 검열은 여성적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검열은 반여성적인 텍스트에 대한 싸움을 가로막는 굴레가 될 뿐이다.

검열은 바로 가부장제와 여성의 성상품화, 반여성적인 텍스트의 유포를 합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은폐물인 것이다

3. 검열은 그 일반 국민을 대단히 우매하다고 전제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검열은 국민 일반이 스스로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법적 권한은 거의 '한정치산자'에 준하며, 남한내 모든 정보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검열된다. 결국 똑똑한 국가 기관이 나서서 한정치산자에 가까운 국민들을 검열을 통해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검열의 전제이다.

정보통신 공간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으로 항상 제시되는 것은 바로 '쌍방향성'이다.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르게 정보의 확산과 수용에 있어서 일방향적이지 아니라, 바로 서로간의 소통을 보장하므로 언제나 비판과 비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공간이 바로 바로 정보통신공간인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도대체 '토론'이라는 것을 모르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음으로 '논쟁'이라는 것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검열은 결코 이러한 비판과 논쟁을 허락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삭제해주고, 제거해준다. 정보통신내에 검열이 존재하는 이상 언제나 토론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주 2] (한정치산자에 가까운)국민간의 토론조차 극히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에서 정치를 하는 이 국가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검열을 통해 보호해 주어야 한다. 결국 정보통신에서의 검열은 미리 전제하였던 '한정치산자' 격의 국민을 새롭게 구성한다.

이때 여성에 있어서도 현재적 착취를 해결하는 주체,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자로 대상화된다.

3. 검열은 언제나 강력한 중앙권력의 기반 위에 가능할 뿐 아니라, 또한 '중앙권력(구체적, 추상적)'을 지속시키는 효과적 수단이다.

강력한 중앙권력을 상정하지 않으면, 혹은 국가내 강력한 헤게모니 집단을 상정하지 않으면 검열은 그 출발부터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다원화된 사회를 인정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를 이루는 주체라고 인정했을 때 감히 다른 이의 사상과 표현을 제거한다는 상상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검열은 언제나

- 국가보안법,
- 검열의 주체는 누구인가
- 중재자의 역할로서의 국가(결코 여성의 대변자가 아니다)

4. 검열은 자생적인 저항에 대하여 부단히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5. 검열은 문화패배주의이다.

● 사례를 통하여

- ▲ 신모라 사건 - 합법적인 여성상품화와 저항의 입막음.
- ▲ 풍속법 -
- ▲ 국가보안법 -
- ▲ 배꼽티 - 한국남성에 의한 강간범죄의 유혹을 막기위해 여성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라!

● 대안

- ▲ 결국 주체는 여성이다 - 여성운동의 강화
- ▲ 음란물 -> 반여성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담론 구성

[주 1] 80년대에 영화속에서 우습게도 여성상위체위는 '음란'으로 가위질을 면할 수 없었다. 또한 천리안에서는 '신정모라'님이 주장하던 '유방은 행진한다'는 글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유방'이라는 음란성 단어를 사용한 혐의로 글이 삭제당하고, 통신 ID를 삭제당하였다.

[주 2] 실사례로 4.11 총선때 선거에 관해 토론하던 통신이용자가 18명이 연행되었으며, 그 중 2명이 구속되었으며, 6명이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다(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선거법으로 구속, 재판을 받은 유일한 사례이다). 그 후 통신공간에서는 정치관련 토론이 눈에 띄일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은정 씨 원고문

- 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의 특징
- 사이버스페이스 검열 논란
 - ▶ 경과
 - ▶ 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 검열을 둘러싼 입장 분석
- 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과 검열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들
- 해결을 위한 실제적 노력
- episode

에기를 시작하며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음란물과 검열에 관한 논란 중에서 무엇이 음란물인가, 여성주의는 음란물을 어떻게 보는가, 음란물 검열은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관해서는 기존 포르노 논쟁 속에서 많은 분석과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나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네티즌으로서의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1) 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의 특징, 2) 사이버스페이스 검열논란의 경과 및 음란물 검열 문제를 둘러싼 입장들, 3) 그 중 여성주의적인 두 관점을 비교해보며 사이버음란물과 검열에 대해 여성들은 어떤 입장을 가질지 모색, 4) 해결을 위한 실제적 노력은 결국 사이버와 리얼스페이스 양쪽에서 함께 일어나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특히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무엇을 할 지, 단기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보려한다.

나를 소개하자면, '여자로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PC통신경력도 1년 반 정도, 여성노동조합과 미스노동조합을 들락날락 한지는 약 1년 정도 되었다. 올 한 해 동안 열리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박람회인 '정보엑스포'96' 행사의 콘텐츠 담당자로 1년 전부터 인터넷을 써왔고 전세계의 여성주의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파도타기(넷서핑)하는 게 취미이다.

(cabi@chollian.dacom.co.kr , ejyi@sec.expo.or.kr , http://expo.or.kr/~mskim/sec/ejyi.html)

1) 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의 특징.

(이 글에서 '포르노'와 같이 쓰고 있는 '음란물'이란 단어는, '성적인 목적과 내용을 담은 제작물'에 대해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과 도의감을 현저히 침해하는데 객관적으로 적합한 것'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일컫는 말이지만 그냥 쓰기로 한다. 음란물을 규정하는 여러 시각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은 '가상 성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포르노비디오와 그다지 다를 바 없어보이나, 제공되는 내용과 형태, 이용방식, 이용자, 주위의 인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이버 음란물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사진이나 그림, 음성, 동영상, 게임 등의 형식으로 제공된다. 이는 디지털 형태이므로 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유통속도가 빠르며 손쉽게 재가공할 수 있다. 또, 적은 제작비로 전세계에 배포할 수 있으므로 상업적 목적과 더불어 개인이나 소수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단체의 목소리를 담기에도 효과적이다. 그 외, 이용자들간의 야한 대화인 '킵섹'도 포함된다.

캠캠, 넷캠이라는 말이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이버스페이스로 들어오는 네티즌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PC 통신은 1-20대 학생층이, 인터넷은 2-30대 직장인들의 이용이 빈번하다. 이들은 '인터넷에서는 '플레이보이' 정도면 점잖은 편'이라고 평가하며 그림'정보'를 내려 받으면서 '펜트하우스'를 압수하고 압수당하는 리얼스페이스의 노망들을 애처롭게 생각한다. '정보화사회' 구호를 든든한 배경으로 하고 첨단 도구와 의사소통방식을 이용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선세대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학부모들은 뭔가(?)에 떠밀려 사다 준 컴퓨터를 아이가 만지작거리는데 걸 보며 뿌듯해하면서도, 인터넷 검색어 빈도1위가 sex라든가, 자살하는 아이 등 극단적인 뉴스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막연히 불안해하고만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사이트 '야후'에서 'sex'에 관해 찾아보면, 많은 내용들이 상업용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들은 일종의 사이버섹스샵으로서 비디오테이프, 인터랙티브 CD-ROM, 사진, 게임, 잡지, 자위기구, 피임기구, 속옷, 각종 섹스도구 등을 소개하고 온라인판매를 한다. 리얼오디오나 스트림웍스를 이용하면 즉석에서(real time) 성행위 장면이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곳도 있다. 그 밖에 'Erotic Arts'류의 예술 사이트나 'Safe Sex'류의 의료사이트들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성을 얘기하는 동성애자 사이트도 많다.

주로 국내 자료를 찾아주는 '심마니'에서 '섹스'를 다루는 사이트를 찾으면, 한국 에이즈연맹

홍보페이지 및 섹스클리닉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이트와 섹스삼은 소개하는 개인홈페이지가 나올 뿐이다. '섹시'는 광고, 영화, 연예인들의 홈페이지들로 연결된다.

PC통신 게임동호회의 게시판이나 자료실에 대부분 일본산의 야겟(야한 게임)이 부수히 올라 오고 있으며 그 주역은 중고등학생들이라 한다. 최근에는 사실 BBS를 통해 전문적인 개인사업은 별이는 중학생까지 등장했다.

2) 사이버스페이스 검열 논란

-1.경과

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 검열에 대한 접근 방법은 3가지로 정리된다: 법률 제정(정부), 개인의 자율이나 민간기구를 통한 조정(민간단체), 소프트웨어적인 접근(기업)이 그것이다.

각국 정부는 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 검열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월, '통신예절법안'(예슨법안)이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상원을 통과했으나, 시민자유연합측이 제기한 소송의 예비판결에서 '음란'이라는 용어가 너무 모호하다는 이유로 시행이 잠정 유보되어 있다. 일본 경시청은 인터넷에 음란정보를 올린 개인을 적발한 바 있으며, 영국도 음란 포르노물을 인터넷 상에서 삭제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업체를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인터넷 음란물 규제를 위한 EU 공통법을, 베트남은 인터넷 상의 불온정보 신고의 무 법률을 제정준비 중이다. 가장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는 곳은 중국으로, 음란한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뿐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세계 주요 미디어, 홍콩, 대만 관련 미디어들의 사이트까지 차단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세계 최대의 통신망회사인 컴퓨서브에 대해 sex, erotica 등의 단어가 들어있는 약 200여개의 뉴스그룹의 접속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140여개국 이용자들의 접속과, 의학정보나 성교육관련 그룹들도 동시에 차단되는 바람에 대대적인 항의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통신검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정부기관과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의 민간통신사업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에로티카'를 음란사이트로 규정하여 인터넷망에서 폐쇄시켰고, PC통신사들은 몇명의 시스템관리자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임의로 게시판 글을 삭제하고 개인아이디를 자르고 있다. (여기서 '임의로'란, 이른바 상식이라고 불리는 가부장적 남성의 판단 그대로 임을 말해주는 사건이 일전에 있었다. 신정모라라는 여성 이용자가 천리안 게시판에 올린 '유방행진곡'이라는 제목의 글이 '음란하여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삭제되고 아이디까지 정지당한 것이다. 이 글은 '과다노출금지법'의 규제대상을 여성이라고 몰아간 남성중심의 여론을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게시판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여자 연예인 나체사진, 음담패설 등은 묵과한 채 통신세계에서의 생명인 아이디까지 박탈한 이 사건에 대해, '대상화한 성을 소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여성이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이 자른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는 PC통신 인구의 절대다수와 관리자가 남성이라는 사실과 리얼스페이스, IC 통념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견제함을 상기시켰다.)

인터넷을 타고 전세계 네티즌들의 호응 속에 펼쳐지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사이버스페이스 검열 관련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이데올로기와 음란 및 폭력물 검열과 관련하여 언론/통신/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이트에서는 '검은 배경화면' 위에 '블루리본'이, 검열에 찬성하는 사이트에는 '레드리본'이 걸려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은 개개인에게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해주는 '폴든키'로 상징되어 있고, 지적재산권(카피라이트)에 대항하여 정보의 민주적 공유를 주장하는 '카피레프트'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PC통신 속에서도 일전의 한국통신 노조의 통신이용 탄압, 한총련 CUG 폐쇄사건,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견해를 올린 몇몇 개인들의 사법처리 등 일련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글제목에 '하얀리본 달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통신회사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이비엠 같은 거대 소프트웨어기업들은, 이용자에 따라 심층을 규제하거나 특정내용의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은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들의 상업적, 미국중심의 패권주의적 음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 검열을 둘러싼 입장 분석

A. 검열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a) 보수진영 : 음란물의 판별은 가능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미국의 빌리판겐에 의하면 음란이란, '호색적 흥미를 위해 현저히 노골적으로 성기권을 노출하고 성행위를 묘사하며, 분학적/예술적/정치적으로 진지성이나 과학적 가치 또한 없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욕의 자극과 흥분을 목적으로 하며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정되었다. 이들 보수 정치계의 개념은 이렇듯 모호하기 때문에 적용시 권력자의 의도가 개입할 여지가 다분하여 논쟁을 낳는다. 나아가, 대중마취를 위해 방임하거나(3S 정책) 자신의 부도덕성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도덕적으로 질타하는데 이용하는 예는 허다하다.(얼마전 주애주의원의 '노골'적인 발언에 대한 여당의원의 '품위' 운운하는 질책은 얼마나 기반적인가?) 종교계가 내세우는 도덕적 순결성은 일반적으로,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한 가치이며 결국 부부간의 성과 생식목적 이외의 모든 성을 음란이라 본다. (이를 비판하는 인터넷사이트의 제목 'Say Yes'는 성의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이자는 뜻이다)

b) 학부모 및 시민단체 :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소년기가 '본래' 성충동에 약하다는 증거는 없으며 청소년기를 정하는 기준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양하다.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성적 일탈은 성충동 자체이기보다는 팽막한 교육, 제도와 권위주의로부터의 탈출욕구인 것 같다. 상당수의 '젓소부인' 비디오에 관람금지되어 있는 '미성년자'이고, PC통신 야겟계를 주름잡는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금지의 유희효과'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속 빈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나우누리의 통계(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통신 이용자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음란물을 보내거나 받아본 경험자는 다 합쳐도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음란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금방 싫증나게 마련" 이고 실제로 "통신 2년차로 넘어가면 음란물에 대해 시들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대해 좀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한 통신이용자의 예기는 귀기울일만하다.

c) 급진적 여성주의 : 여성주의는 외설, 음란성 개념보다는 그것이 여성을 얼마나 성적 대상화하고 비하시키는지에 관심이 있다. 급진적 여성주의는 여성을 비하, 학대하는 포르노는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B. 검열철폐를 주장하는 입장

a) 자유주의 또는 성개방주의 :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리로 삼으며, 사이트등급제를 실시하여 성인의 성적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부산대 성과학 수업교재가 '성기와 성행위 사진이 실렸다'는 유치한 이유로 수거당하고, 독일 고등학생만도 못한 이해수준을 가진 우리사회의 성인들을 업러하여 어깨의 미(?)로 가득한 '섹스북', 소프트웨어는 하드코어를 해어누트를 아예 금지하는 우리나라에서 포르노 암시장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게 성행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면, '썩고 있는 쓰레기 위에 뚜껑을 덮을

게 아니라 꺼내놓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 진영의 대표주자인 마광수 교수는, 위선적 성보편을 성적 자유로 정면돌파하여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위선과 기만에 도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성적 자유'라는 것이 불평등한 사회체로부터 수위된 이들의 사생활 속에 일지적 흥분만을 주고, 대부분의 포르노가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하대할 뿐임을 확인한 때, 영화, TV, 광고, 연극의 해묵은 외설시비, 가요계를 휩쓸고 있는 섹시한 댄스가요 등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예전엔 단순한 소비자였던 일반인은 스스로가 섹스어필에 적극적이라 나서 거리가 온통 섹스 이미지로 출렁이는 요즘, 더욱 아랑해지며 평생용 세계 제3위를 자랑하는 싱가포르의 대장은 거의 대부분 여성이라는 사실 앞에서 또,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 속에서 얻어낸 영화 사전심의 폐지가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하여 여배 벗기기로 이어지는 길 분 때, 이들이 말하는 '자유' 속에 여성의 몫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개인적 욕구 충족은 중요하나 인간의 욕망은 성에만 있는 게 아니며, 성은 어쩌면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권력욕과 중압감을 위해 사회문화적으로 강력히 추천된 수단이거나 빌미일 수 있다. 나아가 성적 자유는 기존의 불평등한 성적규범에까지 도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해방과 사회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b) 현실수용론 : 자유주의보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예술과 외설간의 구분 기준이 불명하고 현실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므로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급진적 여성주의에서는 외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얼핏 보수진영과 한 목소리로 돌리나 그 기준이 여성중심적이라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1992년에 형법 상에 음란법을 제정한 캐나다 대법원은 '음란물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여성에게 해로운 포르노를 불법화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c) 문화적 여성주의 : 급진적 여성주의와 마찬가지로 포르노의 여성비하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나 금지의 역효과를 우려하여 검열에 반대한다. 사회전반의 성문화와 성에 관한 인식에 더 주목하며 이는 음란물만 금지한다고 바뀌는 게 아님을 강조한다.

3) 사이버스페이스 음란물과 검열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들

급진적 여성주의의 주장은 '포르노는 이론, 강간은 실천'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포르노는 가치 중립적으로 성적 관행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여성에 관한 남성의 진술이고 남성권력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여성을 비하하고 종속을 강화하는 포르노를 규제할 것을 이들은 주장하며, 이는 성적 쾌락자체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적 종교계와 다르다. '안전한 섹스'라고 하면 피임만 떠올리기 쉬우나 남성의 일방적인 규정이나 절대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질 때 비로소 여성도 성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데, 기존의 포르노는 이런 규정을 합리화하고 성폭력을 강화하므로 막아야한다고 본다.

문화적 여성주의 역시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시키고 대상화하여 여성의 종속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시키는 음란물에 반대한다. 하지만 음란물을 규제하면 그것에 어떤 진실이 있음을 반증하는 듯하여 더욱 권위를 실어주게 되며, 음란물이라고 규정되는 것 이외의 (여성을 종속적으로 규정하는) '음란적'인 매체들이 끼치는 영향을 간과하여 일상의 미시적인 여성지배를 인정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제정된 법의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급진적 여성주의의 한계가 말해주듯, 법은 결국 최소한일뿐 사회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가부장적 성문화와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문화적 여성주의는, 사회와 함께 계속 변해가는 검열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소수자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민주적인 토론을 위한 봉쇄함으로써 지배이데올로기를 종속시킨 위험이 있으므로 끊임없는 토론과 담론을 만들어내어 권력을 분배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비슷하다. '그의(his)'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므로써 기리를 본다.

인터넷에서 검열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사이트로는 FAC(Feminist Against Censorship, <http://www.fiaawol.demon.co.uk/FAC/>)와 NW/FACT(Northwest Feminist Anti-Censorship Taskforce, <http://www.aa.net/~nw-fact/>)가 있다.

FAC는 "나쁜 만에 대한 가장 좋은 대항은 좋은 만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체 이미지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인쇄매체와 공청회, 대중 이벤트, 상연 및 방송출연 등을 통해서 성차별주의에 대한 남분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활동들은 편도 없이 FAC에서 벌인 시업들로부터의 수익과 후원금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고 한다.

NW/FACT 페이지에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시민을 보호한다는 논리의 허구성, 성인의 성서결정권에 대해 논의하며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성을 위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음란물을 바라보는 여러 입장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음란물 논쟁 속에서 여성은 관람대상이거나(포르노 여배우), 소극적 소비자이거나(여대 앞 비디오방의 에로물 대여순위가 높다며 왜 몇몇이 영화관에 가지는 않느냐고 여대생들의 내숭과 문란한 성의식을 질타하던 신문기사), 보호의 대상(여성은 성적으로 무지하고 순결해야 한다)으로 규정된다. 섹스샵을 소개하고 있는 한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성기를 연상시키면 음란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여성을 위한 자위기구는 없다고 전하고 있다. 여성이 실제로 어떻게 쾌락을 느끼는지도 모르는 남성이 생산자니 어쩔 수가 없다. 여자에게 표정연기와 신음소리를 지도하고 그녀의 몸을 카메라로 낚낚이 찍어서 팔고 그걸 보며 즐기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남자다. (일전에 청강한 대학원 수업에서 포르노를 분석할 때 포르노테이프를 본 사람은 전부 남자밖에 없어, 여학생들을 위해 포르노를 보여주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했다)

국가보안법 등 이데올로기 문제와 관련한 검열철폐의 목소리는 높지만 음란물에 대해서는 모호한 '표현의 자유론'만이 떠다닌다. 그 그늘에서 순진하고 유치할 정도로 여성에 무지하여 결국은 폭력적인 포르노가 성행하고, 보수 권력자, 도덕주의자, 대중을 우매한 보호대상으로 몰아가는 근엄한 계몽주의자들이 각기 제 입장을 주장하고 나선다.

이런 속에서 제대로된 여성의 얘기는 여자들이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방어를 하는 한편 여성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여성 담론을 만들고 전파해갈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에도, 그에 맞서는 대항 담론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체대로 노골적인' 여성의 성을 여자들은 어떻게 얘기해 가야할까.

가부장제가 세뇌시킨 순결의식과 성적 수치심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적나라하게/솔직히 드러내다보며 즐거움을 개발시켜가기, 많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가질 수 밖에 없는?) 성적 불감증 자체를 드러내고 분석해보기와 함께, 지금과 같은 성적 불평등 상태에서는 남성의 개입을 아예 배제하자는 주장과 여성용 자위기구나 레즈비어니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여성에 관한 강한 규정들은 모호해지고 남성중심의 성담론이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한 여자시인이 '마지막 섹스의 추억'이라는 원제를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바꿔 시집을 출판해야했던 상황에 비해 볼 때, 요즘은 성적 표현에 과감한 여성들이 힘(power)을 갖는 듯하다. PC통신 내에서 섹스론을 펼치다가 호응을 얻어 책을 출간하는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돈나와 물라의 김지현은 도발적인 성적 매력을 바탕으로 남성들의 욕망 위에 군림하는 듯하다. 세도메지 키스트 클럽에서 '체적을 휘두르며 남자들을 지배했던' 한 여성연구자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일침을 가한다. '육체의 정치학(Body Politics)'이라는 사이트(<http://the.arc.co.uk/body/home.html>)에 올린 '여주인인가, 노예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녀는, 여성이 성적으로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듯한 상황을 자세히 보면 남성이 무더론인 셋넷 속에서 허락받은 대로 숨을 쉴 수 있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인 뿐이라고 한다. "남자를 지배한다는 것 같은 것이라도 자신이 실제로 무술의 유단자가 아니라면 위키지 남성의 우월한 체력 앞에서 그런 건국 환상인 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상조한다.

이렇듯 단순하거나 반반지않은 현실 속에서 상당론은 제대로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이성개개인 이 고립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무지런히 주고받으며 분명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뉴미디어가 편치는 사이버스페이스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4) 해결을 위한 실제적 노력

1. 사이버스페이스 속의 여성들

하늘에서 뜬 떨어진 신인류가 아닌 기존의 관념과 구조 하에서 숨쉬어온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뉴미디어 속의 세상에도 실제 세상 즉, 리얼스페이스의 문제들이 그대로 이어진다. 더우기 전세계 약 5천만명의 인터넷 네티즌 중의 70% 이상이 백인 남성이며 70만 국내 PC 통신 인구의 80%가 남성이라는 통계를 접할 때 사이버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성에게 장미빛일 수는 없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디라는 허상적 인격이 무책임하게 야기하는 문제들(언어폭력, 다중인격 등), 전달 속도가 가장 우선시되면서 즉자적이고 선정적인 경향으로 흘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의사소통은 넓지만 깊기는 어렵고 기존의 가치체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단순한 언설들이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또다른 몇가지 특징들은 희망을 갖게 한다. 소수의 정보생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수용되던 기존 매체와 달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인으로서의 대중, 특히 자본과 권력에서 열세인 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네트워크를 이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폭발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 여성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4초마다 하나씩 새 홈페이지가 개설된다는 인터넷 속에서 여성관련 사이트가 몇개이며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순 없지만 다양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리얼스페이스에서 여성을 위해 제공되는 거의 모든 정보에 더하여 전지구적으로 연결되는 홈쇼핑과 홈뱅킹 등 인터넷의 특성을 살린 사이트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여성들이 만든 사이트를 살펴보면 사진, 그림, 저술, 영화, 음악 등의 여성 예술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 여성학 및 여성과 관련된 법,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심리 전반의 이슈들을 다루는 학술단체와 운동단체 페이지 및 각종 여성 프로젝트의 홈페이지, 비지니스('여성에게 일자리를', '딸들을 일터로', 전문직여성을 위한 조언 등), 건강, 이가 및 취미활동, 성정체성(레즈비언, 바이섹슈얼 등), 의료 및 성 정보(임신, 피임 및 자위기구 등), 제3세계 및 인종, 그밖에 개인여성들의 홈페이지들이 하이퍼텍스트와 링크라는 방식으로 24시간 7일 24시간 세계 어디서든(World Wide Web) 연결되어 있다. (참고: <http://expo.or.kr/~mskim/sec/cjyi.html>의 북마크(Bookmark))

한글 사이트를 찾아보면 여성관련 상품정보나 '나의 여성상' 류의 남자들의 개인홈페이지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과 대학도서관 정보 정도가 고작이고, 여성의 얘기를 여성자신의 목소리로 하고 있는 곳은 '가뭇에 콩나듯 만나'는 여성들의 홈페이지' 몇개 뿐, 본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는 현재 하나도 없다.

PC통신에서 상업적 여성정보 받고 이성이용지 스스로 만드는 공간을 찾아보면? 3대 PC통신망

을 살펴보면, 하이텔에는 몇달 전에 '작은 모임'에서 '동호회'로 승기한 '페미니스트들의 천국'(go femi)과 여성전용 대화실(go wechat)이 있고, 천리안에는 '여성학동호회'(go femi), '주부동호회'(go jubu), 나우누리에는 '미즈'라고 불리우는 여성전용 동호회 '생의 한가운데'(go miz)와 작은 모임 중에 '여성주의 문화연구 모임'(go ssociety)이 있다. 또, 하이텔의 '동성애자 모임-또하나의 사랑'(go sg172)', 천리안의 '동성애자 인권 모임'(go society.3), 나우누리의 '레인보우'(go ssociety) 등에서 활동하는 레즈비언 여성들이 있다. '외 하이텔의 '바른 통신을 위한 모임'(go barun), 천리안의 '희망터'(go pp), 참세상(01410 접속 후 '참세상') 내에 이성분과가 있다.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사이버스페이스에 여성의 자리를 넓혀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여성학 관련 자료들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둘째, 기존의 여성운동단체들이 사이버스페이스 상에 진지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셋째, 어렵사리(경제적, 심리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 들어와서도 남성들의 목소리 속에서 떠도는 여성들이 모인 다양한 공간 만들어가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부터 찾아보면 어떨까. 위의 세가지와 각각 연관시켜서 생각해보자.

첫째를 위해서 우선은 문제의식-기록의 축적-소통으로 이어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신의 고유한 경험 속에는 이 사회 여성으로서의 보편성이 녹아있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풀어내어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필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도 잘 보관하여 언젠가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무력한 개인의 의견은 소통을 통해서 모일 때 담론이 될 수 있다. 디지털화는 소통을 쉽고 빠르게 하여 정보의 공유를 돕는다. 정보화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의 여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갈 필요가 있다.

둘째가 시작되는 움직임이 보인다. 시민사회인터넷에서는 또하나의 문화, 여성민우회, 여성신문 등의 단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고 여성정치연구소를 중심으로 '페미넷'이라는 프로젝트도 시작되었다고 한다. Sing의 홈페이지도 여성사이트들을 링크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각 PC통신의 여성 동호회들 중에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여성신문은 작년 말부터 PC통신에 신문내용을 올리기 시작했고 나우누리에는 정무 제2실의 방이 개설되어 있다. 이 작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돈과 인력인데, 작년에 정부예산을 따내어 실시한 여성단체실무자 컴퓨터 기초교육은 힛트가 될 수 있다. 또, 요즘 인터넷과 컴퓨터기초 무료교육을 해주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많던데 이들과 손잡고 여성대상의 교육을 기획하는 것도 가능해보인다.

셋째는, '미즈'처럼 친목에서 시작하여 사회비판 여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수도 있겠고, '페미니스트들의 천국'처럼 첨부터 여성주의자들의 모임을 표방하고 자리를 여는 방법도 있겠다.

이 곳에서 일단 스스로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얼마전 여성학 동호회에서는 일명 조개 사건이 있었다. 게시판에 오른 여성회원들 간의 논쟁을 보고 한 남자회원이 '조개들이...' 운운하며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린 것이다. 여성의 신체를 모독하는 이 형편없는 글에 대한 여성회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호물거리는 해삼'이라고 맞받아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하던 얘기를 계속하자는 사람, 고발하겠다고 변호사까지 알아본 사람, 운영진에서 그 글을 삭제하기를 요구하는 사람, 천리안 센터에 고발해서 아이디를 아예 삭제해버리자는 사람 등등... 그 이전까지는 이런 남자들의 '훼방'에 휘말려 들어가거나 침묵해버리다가 하던 여성회원들이 와글와글 떠들고 나오오고, 직접 만나자는 메일을 보내는 사람까지 있자 그는 얼마 못가 스스로 자신의 글을 지웠다.

나아가 여성의 담론을 만들어내자. 여성학 동호회 내에는 여성전용 게시판이 따로 있다. 성을 얘기하는 제목만 올라오면 조회수가 갑자기 엄청 높아지고 '강간당하고 싶어하는 여성의 심리' 어찌구 하는 비회원자들과, '여성을 사랑합니다. 단 예쁜 여자만' 따위의 가입신청서를 내고도 어찌어찌 통과된 남자회원들의 유치한 호기심과 귀찮은 개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위나 성욕, 오르가즘에 관한 깊은 논의들은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남성의 눈이 두려워서가 아

나라 의사소통이 안되는 남자들에 의해 사무원 반목이 갈려 여성의 얘기가 축적이 안되는 상황에서 여성들만의 공간 확보는 리얼스페이스에서의 '자기만의 방'이나 여성끼리 만담기 못지않게 중요하다. 주부동호회는 전화로 확인한 정도로 가위질처럼 엄격히 하고 있다.

사실 사이버스페이스는, 리얼스페이스에서 만든 자기 물건(고민과 의견)을 들고 나와서 선전하고(의사표현), 맞바꾸고(토론), 더 좋게 만들 방법을 귀동냥하는(정보수집) 장디에 불과하다. 상터에 자리를 잡더라도 팔 물건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없이 무작정 사이버스페이스, 정보의 바다로 들어가는 사람은 길을 잃고 떠도는 미아가 되거나 남들의 파도에 휩쓸려 물만 잔뜩 먹게 될 것이다. 그러고서 돌아외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은 눈 앞에 그대로 쌓여 있을테고, 그러므로 문제는 다시 리얼스페이스이다.

에피소드 하나: 내가 속한 정보엑스포'96 조직위원회에서는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다. 실습강의를 맡았던 내게 인터넷 검열문제에 대해 언급을 해달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음란 사이트와 북한 사이트를 예로 보여달라는 주문과 함께.

대중매체가 그려내는 이미지 속의 성 왜곡에 염증을 느껴온 나는 1년 가까이 인터넷을 켜오면서 이른바 음란 사이트에는 안 들어갔었다. 가끔 남자직원들이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 사이트를 찾아놓고서 깔깔대면 "아, 사람 몸 침박요? 그런 건 애들 때 다 떼는 건데 아직도 신기한가?"하고 편잔을 주며 내 반응을 흥미롭게 살피는 그들을 실망시키곤 했다.

음란 사이트라... 거의 남자일 국회의원들 앞에서 일반적으로 '음란'하면 쉽게 떠올리는 여자의 유방, 엉덩이 그림을 보여주어 또다시 '여자를 대상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성의 성적충분을 위해' 남성의 몸을 보여주는 사이트를 찾아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sex and "for women"로는 여성용 자위기구와 레즈비언 사이트가 쏟아졌고, sex and man and "his body"로 찾은 남성의 몸들은 게이 사이트와 보디빌딩 사이트에 전시되어 있었다. 여자들이 즐겁도록 옷을 벗는 남자들 페이지는 겨우 한두개 있었는데 근육질 일색이었다. 섹스잡지를 찾아 보니 men, women, man&woman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남성용은 50여개인데 비해 여성용 4개는 모두 게이 사이트였다. 그 중에서 한 사진을 발견했다- 마치 노예가 형틀에 매달린 형상으로 얼굴과 두 손을 치켜들고 정면으로 서 있는 나체의 남자, 얼굴은 안보이는 빨간 손톱의 여자손이 그의 다리 사이로 나와 그의 페니스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 사진이 무대 위의 프로젝트로 이따만하게 확대되고 눈 앞의 화면에 펼쳐지는 그 순간을 자세히 관찰할 순 없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불쑥 튀어나온 남자의 나체와 그를 꼭 쥐고 있는 여자의 손이 풍기는 이미지가 남자인 그들을 당황스럽게 했음을 몇몇의 표정과 나중에 전해들은 말을 통해 확인하였다. 여성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라고 갖다 붙이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분노섞인 당황감으로 표현된다.

- 이혁 씨 원고문

● 토론에 대한 몇가지 단상

▶ 검열과 음란물

▶ 컴퓨터, 네트워크와 여성

▶ 한국에서 생겨나야 할 것들

● 인터넷상의 여성관련 정보

● 참고자료 - NCSA Working Group

On Women, Censorship, & "Pornography"

토론에 대한 몇가지 단상

정보연대 SING 간사 이혁

1. 검열과 음란물

검열문제와 여성 - 성문제(Gender Issues)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검열의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음란물"인 점에서 성문제와 검열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실공간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은 내버려둔채, 가상공간안의 음란물을 문제 삼으려 하는 것은 검열의 이유가 "음란물"에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또한, 온라인 공간안에서 음란물을 막는 것이 여성에게 좋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외국의 많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통신상의 검열에 반대하고 있으며 에로틱과 포르노를 구분하여 견해를 밝히는 사람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 여성, 검열, 그리고 포르노에 관한 NCSA 활동그룹"(http://www.ncac.org/wc&phome.htm)과 [참고자료 2] "Sara Norman의 검열과 여성에 대한 견해"(http://dept.english.upenn.edu/~snorman/cult/)를 참조하길 바란다.

"음란물" 검열과 관련하여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야기되고 있다. 음란물 검열이 일차적으로 페미니스트 활동을 억누를 것이며, 페미니즘에 관한 학술적인 토론조차 음란물 검열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통신 검열과 관련이 있다(Self Nude를 생각해 보라).

검열과 관련하여 나의 생각은 CUAC(Civil Unions for Anti-Censorship)과 견해를 일치한다. CUAC의 검열에 관한 생각은 "정보통신 검열백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다만, "완전한 검열철폐"에는 동의하나, 몇가지 문제에 대한 고려이다. "핵무기 제조법", "악마주의", "파시스트 웹사이트", "역겨울 정도의 포르노", ...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관용" - 자신과 다른 남을 인정하려는 의미에서 - 이 널리 퍼졌으면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이런 것들을 용인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므로, 이런 것들은 사후 법적장치 - 청소년 보호법, 형법, 국가보안법 -를 통하여 제어가 가능하며, 따라서 포괄적인 통신 검열의 이유가 될 수 없다.

2. 컴퓨터, 네트워크와 여성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여성은 적다. 생물학적인 차이인가? 결코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출생후, 교육 및 문화 등 환경전반이 여성을 컴퓨터, 넓게는 과학기술에서 배제시켰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psr.org/dox/program/gender/papers.htm"를 참조하기 바람.

여성들은 주류질서에서 배제된채, 자신들끼리의 친밀성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이런 친밀성의 공간과 무척 유사하다. 여성은 쉽게 컴퓨터 네트워크 공동체에 익숙해질 수 있다. 어쩌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합한 지 모른다.

3. 한국에서 생겨나야 할 것들

전제 : 혼자서 아닌 연대의 필요성

한국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새로운 여성운동 모임"이 필요하다.

두가지 가능성... 컴퓨터에 익숙한 여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Community... 그리고, Gender Issues에 대한 활동. 또 다른 하나는 여성 활동가들이 의식적으로 Network를 적극적으로 사고하면서 나옴. 개인적으로 두 번째와 첫 번째는 서로 만나야한다고 생각됨.

인터넷상의 여성관련 정보

정보연대 SING 간사 이혁

1. 들어가며

작년 한해는 한마디로 '인터넷의 해'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인터넷 특집을 다룬 여러 잡지중 뉴욕타임즈에서는 마셜맥루한의 '미디어는 메시지다'를 재인용하여 '만일 매체가 곧 메시지라면, 이제 그 메시지는 웹(World Wide Web)이다' 라는 말을 헤드라인으로 올렸다. 마우스만을 누르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편리함과 그래픽, 동영상, 음악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확장성은 웹을 인터넷의 대표적 서비스로 만들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등 한국의 대표적 BBS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이네트, 넥스텔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생겼으며 올해들어서 현대, 삼성등 대기업들도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다. 정부 또한 2015년까지 각 가정까지 정보고속도로를 깔 예정이다.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주로 사용하던 인터넷을 일반인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에 비해 사회단체나 운동조직들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한국내에서 보기는 어렵다. 외국의 경우 수많은 비정부조직들(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성관련 연구와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글의 많은 부분들은 '라우라 헌트(Laura Hunt)'가 쓴 '여성연구/페미니스트 정보를 위한 인터넷상의 자료(Sources for Womens Studies/Feminist Information on Internet)'를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2장에서는 인터넷 상의 정보 제공 서비스인 고퍼(gopher), 아키(archie), 웨이즈(wais) 등을 소개한다. 고퍼(gopher)는 메뉴구조에 기반한 인터넷 정보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고퍼(gopher)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가 어디있는 지 확인한 후 Telnet이나 FTP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웨이즈(Wais)는 'Wide-Area Information Server'의 줄임말로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찾아보기위한 서비스이다. 아키(Archie)는 인터넷상의 공개된 파일들의 인덱스 서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3장에서는 메일링 리스트나 뉴스그룹을 소개한다. 인터넷 상의 의사교환은 주로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자우편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자신의 계정을 갖고 있어야한다.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메일링 리스트나 뉴스그룹에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게 된다면 자신이 보낸 편지는 그 메일링 그룹의 모든 가입자에게 가게 되고, 다른 가입자들의 편지도 받아보게 된다. 고퍼(gopher), 뉴스리더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뉴스그룹의 내용들을 읽을 수도 있다.

4장에서는 웹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대표적 여성관련 웹페이지들을 소개한다. 웹(World Wide Web)은 인터넷 보편화를 보편화 시킨 서비스이다. 복잡한 유닉스 명령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마우스만을 클릭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네트스케이프 같은 웹 브라우저로 웹뿐만 아니라 고퍼, 아키, 웨이즈등 인터넷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웹을 중심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통합되고 있다.

2. 고퍼, 아키, 웨이즈

고퍼는 디렉토리구조의 메뉴를 통하여 정보를 찾는 서비스이다. 대학기관등 많은 기관에서 고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퍼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인터넷 이름(Domain Name)을 알고 있으면 유닉스 프롬프트상에서 'gopher 서버의 인터넷이름(Domain Name)'을 치면 된다. 그후 화살표와 엔터를 사용하여 주제를 선택하여 자료를 찾으려면 된다. 화살표를 움직여 '4. Educational Resources'를 선택한후 엔터키를 누른 후 다시 메뉴구조의 화면이 뜬다. 여기서 다시 '2. Academic Resources by Topic'을 선택한후 엔터키를 누른 후 거기서 다시 '24. Womens Studies Resource'를 선택하면 된다. 'inform.umd.edu'는 메리랜드 대학의 서비스로, 여성관련 연구에 대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자료의 많은 부분은 다음에 설명할 'WMST-L의 Listserv'의 여성연구로부터 제공된 것이다.

키워드로 조사를 할려면 '/'를 누른 후 자신이 찾고자 하는 주제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상위 메뉴로 이동하려고 하면 'n'을 누르면 된다. 기타 사용법은 '?'를 누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고퍼서비스중 여성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페미사 리스트 서브 아키'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의견교환을 모아 놓은 곳이며, '고퍼도나'는 이탈리아어로 제공되는 고퍼이다.

인터넷상의 여성관련 고퍼정보

-* 미네소타대학의 여성센터 (University of Minnesota's Women's Center) : rodent.cis.umn.edu : University of Minnesota Campus Information -> University of Minnesota's Women's Center

*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컴퓨터 전문가 모임(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 gopher.cpsr.org : CPSR Main directory -> Gender & Minority Issues

* 케니온 대학의 여성, 성관련 연구 (Keyon College Women's and Gender Studies) : gopher.kenyon.edu : Kenyon College departments and programs -> Academic departments and programs -> Women's and Gender Studies

* 페미사 리스트 서브 아키(FEMISA Listserv Archive) : csf.colorado.edu : Feminist Scholarship

* 텍사스대학(University of Texas) : whiteman.gar.utexas.e여 : Other Gophers -> Women's Studies

* 고퍼도나(Gopher Donna) : gopher.idg.fi.cnr.it : Gopherdonna

* OIES의 여성연구를 위한 센터(Centre for Women's Studues in Education at OISE) : porpoise.on.ca : The Collection of online education resources at OISE -> Centure for Women's Studies in Education

*inderect의 고퍼 서비스 : gopher.indirect.com : Internet Direct - Our Gopher Server -> Reference Materials -> Virtual Reference Desk -> Women's Studies and Resource

웨이즈는 인덱스화된 자료를 조사하는 서비스이다. 고퍼와 비슷하나 키워드로 자료를 찾아나가는 점에서 다르다. 'telnet 인터넷 주소(Domain Name)'으로 연결한 후 Login이 뜨면 'wais'로 접속하면 된다. 'help'나 '?'를 누르면 그 사용방법을 알 수 있다.

아키는 인터넷상의 일반에게 공개된 파일들을 인덱스로 조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웨이즈와 비슷하게 'telnet telnet 인터넷 주소(Domain Name)'으로 연결한후 arhchie로 접속하면 사용할 수 있다. 접속후 help를 치면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알 수 있다. 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등에서도 아키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우누리'의 경우 'go internet' 한후 '아키'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대표적 아키제공 서버이다.

telnet archie.sura.net
telnet archie.unl.edu
telnet archie.ans.net
telnet archie.rutgers.edu

3. 메일링 리스트, 뉴스그룹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려면 가입 전자우편을 보내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메일링 리스트의 편지를 받아볼 수 있다. 메일링리스트의 가입방법은 서버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부분의 가입방법은 이 글의 뒷부분에 정리된 인터넷 계정으로 편지 본문에 다음과 같이 넣어서 메일을 보내면 된다.

subscribe List Name [당신의 E-mail 주소] [당신의 이름]

그러면 그 처리결과 메일이 되돌아 온다. 만약 주소는 맞는 데 잘 되지 않는다면 편지 내용에 'help'를 적어서 보내면 자세한 사용법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메일서버에 존재하는 메일링 리스트의 목록을 받아보고 싶으면 'lists'라고 넣어서 보내면 잘 정리된 리스트 목록을 받아볼 수 있다.다음은 나우누리의 인터넷메일(go imail)을 이용하여 WMST-L이라는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는 것을 갈무리한 것이다.

인터넷 주소 : listserv@umdd.umd.edu

← 메일링리스트 서버의 E-mail 주소

제 목 (60Byte이내) : . ← 아무거나 입력해도 된다.

보내실 편지의 본문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1. 문서(Text) 2. 이진(Binary) 0. 취소

선택 > 1

입력 및 전송방법을 선택하십시오.

1.줄쓰기 2.쪽쓰기 3.PICO 4.VI 5.Zmodem 6.Kermit 0.취소

선택 > 1

줄쓰기 (끝낼때는 새로운 행 첫칸에 [CTRL + Z] 또는 [.] =

*1: lists ← listserv@umdd.umd.edu에 있는 모든 메일링 리스트

목록을 원할 때

*2: subscribe WMST-L LeeHyeok ← WMST-L이라는 리스트에 '이혁'이란 이름으로 가입할 때

*3: help

← 자세한 사용법을 알고 싶을 때

*4:

위와 메일을 보내면 조금후 답장이 온다. 위의 경우는 메일을 통해서 서버에 세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실행시킨 것이다. 그래서, 메일링리스트목록, WMST-L 가입축하 메시지, 사용방법등 세통이 넘는 전자우편 답장이 온다.

만일 보낸 메일이 잘못되었으면 왜 잘못되었는지 답장으로 즉시 알려준다.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되면 몇주간은 그 리스트에 대해 논의되는 흐름에 따라가길 바란다. 그리고, 메일을 쓰는 사람들의 상황과 그 리스트의 목적을 파악한 후 참가하기 바란다.

4. 월드 와이드 웹

여성관련 웹사이트만도 인터넷 상에서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웹이란 말 그대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그래서 메시지 내용과 연결(links)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을 찾기가 힘들다. 하지만, 잘 정리된 인덱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쉽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은 여성관련 사이트를 정리한 인덱스들의 주소(URL)이다.

- http://www.yahoo.com/Social_Science/Women_s_Studies/
- http://www.yahoo.com/Society_and_Culture/Gender_Issues/Women/
- http://www.yahoo.com/Society_and_Culture/Gender_Issues/Women/Indices/
- http://odyssey.lib.duke.edu/women/cyber.html
- http://english-www.hss.cmu.edu/feminism.html
- http://humanitas.ucsb.edu/shuttle/gender.html
- http://asa.ugl.lib.umich.edu/chdocs/womenpolicy/womenlawpolicy.html
- http://umbc7.umbc.edu/~korenman/wmst/links.html
- http://www.law.indiana.edu/fcfc/webresources.html
- http://www.igc.apc.org/women/feminist.html
- http://women-online.com/women/
- http://www.mit.edu:8001/people/sorokin/women/index.html
- http://feminist.com/reso.htm
- http://www.ibd.nrc.ca/~mansfield/feminism.html
- http://www.rpi.edu/~schmel/gender.html
- http://mevard.www.media.mit.edu/people/mevard/women.html

운동단체들의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소개, 활동내용, 현재의 문제, 다른 단체들과의 연결 등을 제공한다. 특히 당면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여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잘 알려진 여성관련 웹사이트로 추천 할만한 곳으로 APC(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소속의 'WomensNet'가 있다.

'WomensNet'은 여성의 권리 증가를 목적으로 정보의 공유, 방송, 협력을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여성, 활동가, 조직들의 세계적인 통신 네트워크이다. 컴퓨터 네트워크 도구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 하며 그들이 기술적 보조와 훈련을 통해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돕고 있다.

여성, 활동가, 조직들의 생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가상 정보에 접근권을 도와주며, 그들의 일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베이징에서 열린 NGO회의 이후 소식을 자세히 알 수 있다.

5. 글을 마치며...

인터넷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개방 네트워크(Open Network)였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올리고 있다. 자료의 사용료도 받지않는다. 그야말로 사회주의적인 공유의 이상에 다가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인터넷 검열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이 일반에게 보급되면서, '정보제

a> 학습의 개념 section c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공> 학습의 개념 section d

컴퓨터 영역에서 최근에 생겨난 기술이 성적 욕망을 어떻게 바꾸며, 정의내리고,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는 곳이다. 온라인 섹스, 에로틱한 소프트웨어, 하이테크 섹스도구, 집에서 만든 비디오 등을 포함한다.

* ECOFEM(listserv@csf.colorado.edu)

지역적인 문제에서부터 전세계적인 문제까지 여성과 환경에 관한 논의를 하는 리스트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에코페미니즘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진다. 지역활동에 대한 정보, 입법 활동, 국제조약/협약, 출판, 논문요약,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메일링 리스트이다.

* EDEQUITY(majordomo@confer.edc.org)

교육의 평등에 대해서 토론하는 리스트이다.

* EDUCOM-W(listserv@bitnic.educom.edu)

여성에게 이익이 되는 기술과 교육에 관한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는 리스트이다.

* FAB(fab-request@phil.ruu.nl)

생명윤리에 대해 알고 싶은 페미니스트에 초점이 맞추어진 리스트이다.

* FAMILYLAW-L(listserv@lawlib.wuacc.ee)

가족법의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메일링 리스트

* F-EMAIL(mailbase@mailbase.ac.uk)

인터넷워킹은 압도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나 사실은 여성이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는 제안하는 것을 주된 관점으로 해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에 있어서 성의 차이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도모하기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영국의 메일링 리스트이다.

* FEMAIL(femail-request@lucerne.eng.sun.com)

전세계의 페미니스트들의 공유된 의사소통 통로를 제공하는 리스트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가입도 환영받는 곳이다.

* FEMALE-L(listserv@alijku04.edvz.uni-linz.ac.at)

오스트리아의 여성연구 리스트이다. 페미니스트 연구와 교육, 회의에 관한 정보, 새로운 책, 알고 싶은 사항, 기타 여성연구와 관련된 온라인 자료 등을 독일어나 영어로 교류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 FEMECON-L(mailserv@bucknell.edu)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를 위한 리스트이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경제학에 관한 정보, 질문, 답변등이 주로 오고가는 곳이다.

* FEMISA(listproc@csf.colorado.edu)

페미니즘, 성, 여성과 국제 관계, 국제 정치, 국제적인 정치경제학 등에 관한 의견교환 리스트이다.

* FEMJUR(listserv@listserv.syr.edu)

페미니스트 법학자를 위한 리스트이다. 페미니즘, 여성, 그리고 법률에 관한 이슈와 이론에 관해서 토론하는 포럼이다.

* FIST(listserv@dawn.hampshire.edu)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리스트이다.

* FMST-L(uotago@stonebow.otago.ac.nz)

페미니즘 이론, 철학에서의 페미니스트적 관점, 최근의 페미니스트 논쟁, 출판, 연구, 서적, 필름에 대한 리뷰 등을 다룬다.

* GAYNET(majordomo@queernet.org)

대학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에 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춘 리스트이다.

* GENDER(comserve@vm.its.rpi.edu)

커뮤니케이션과 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리스트이다.

* GENDER-SET(mailbase@mailbase.ac.uk)

성,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에 관한 연구의 토론을 위한 리스트이다.

* GEOGFEM(listserv@ukcc.uky.edu)

지리학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한 리스트이다. 이론이나 경험적인 이슈, 책 리뷰, 논문 요청, 회의 정보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 GLOQSOC-L(listserv@bingvmb.cc.binghamton.edu)

게이/레즈비언 사회과학 리스트이다. 사회학자, 인류학자, 역사가, 정치학자, 경제학자, 철학자들이 주로 가입한다.

* GRANTIE(listserv@nic.surfnet.nl)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로서, 성, 새로운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등의 영역에서 연구를 돕고, 이론이나 연구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장의 역할을 한다.

* H-STATE(listserv@msu.edu)

여성, 어린이의 복지에 관한 이슈를 포함한 복지, 사회복지의 역사, 정책등에 대한 리스트이다.

* H-WOMEN(listsev@uicvm.uic.edu)

여성의 여성에 관한 것으로 학자와 선생님을 위한 포럼이다.

* ICWP-L(listsev@ubvm.cc.buffalo.edu)

희곡을 쓰는 여성을 위한 메일링리스트이다. 여성 희곡작가를 위한 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er for Women Playwrights)를 위한 것이나, 회원이 되기전 석달동안 리스트에 가입할 수 있다.

* INTERNET-WOMEN-HELP(majordomo@best.com)

인터넷과 관련된 행사와 이슈의 다양한 영역에서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기위해 여성에게 제공되는 포럼이다. 질문과 답변만을 대상으로 한다.

* INTERNET-WOMEN-INFO(majordomo@best.com)

페미니스트 웹 사이트의 위치, 신작 서적의 리뷰등 여성과 인터넷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위한

장소이다.

* LGBPSYCH(neil@psych.mcgill.ca)

심리학을 전공하는 레즈비언, 게이, 동성애자인 대학생 사이에서 정보교환, 지원, 토론을 위한 포럼이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열려있다.

* LIBFEM(libfem-request@math.uio.no)

페미니스트 사이의 교환을 위한 리스트이다.

* LIBWAT(LISTSERV@UBVM.CC.BUFFALO.EDU)

도서관에서 새로운 기술이 여성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한 리스트이다.

* LIVING(LIVING-REQUEST@QICLAB.SCN.RAIN.COM)

육체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위한 리스트이다.

* MAIL-MEN(MAJORDOMO@CS.ST-ANDREWS.AC.UK)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남성의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경험'이 주제가 될 수 있다.

* MATFEM(LISTPROC@CSF.COLORADO.EDU)

21세기를 위한 페미니스트 프로젝트를 세우기위한 의도에서 이론적, 활동가적 관점에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리스트이다.

* MENOPAUS(LISTSERV@PSUHMC.HMC.PSU.EDU)

폐경기의 여성을 위한 리스트이다.

* MOMS(MAJORDOMO@QICLAB.SCN.RAIN.COM)

레즈비언 어머니를 위한 리스트이다. 여성만이 참가있다. 그리고, 가입자만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 MUJER-L(LISTPROC@LMRINET.BSE.UCSB.EDU)

멕시코계나 라틴계 여자 미국인에 관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한 리스트이다.

* MWCF(JUZAK@AECOM.YU.EDU)

미국 화학자 협회(the American Chemical Society)가 후원하는 리스트이다. 화학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직업과 개인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하기위한 고상다. 협력자, 조수를 다루는 법, 고민거리, 어려움, 실업, 경력 등이 다루어진다.가입을 하려면 본문에 "subscribe MWCF" 라고 해야한다.(따옴표를 포함해서)

* NOGLSTP(NOGLSTP-REQUEST@ELROY.JPL.NASA.GOV)

게이 레즈비언 과학자와 기술가 조직(National Organization of Gay and Lesbian Scientists and Technical Professionals)의 리스트이다.

* PERSONALIST-FEM(Majordomo@qiclab.scn.rain.com)

페미니스트적 성향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것과 관련있는 일, 생각, 경험 등을 교환하는 리스트이다.

* POWR-L(LISTSERV@URIACC.URI.EDU)

여성 심리학 자료 리스트이다. 미국 심리학 협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Division 35'와 심리학 여성 협회(the Association for Women in Psychology)에서 후원한다. 현재의 주제, 연구, 교수학, 공공정책 등에 대한 의견교환과 정보가 실린다.

* PSYCWOMEN(PSYCWOMEN-REQUEST@FRE.FSU.UMD.EDU)

여성심리학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목적으로하는 학생들을 위한 리스트이다.

* PWINET-L

미국 심리학 협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여성심리학을 다루는 부서인 'Division 35'에서 페미니스트 심리학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 가입을 할려면 FRIEZE@VMS.CIS.PITT.EDU로 가입의사를 밝히는 메일을 보내면 된다.

* QAPA-L(LISTSERV@BROWNV.M.BROWN.EDU)

아시아 태평양 미국인 동성애자 의견 리스트로, 네트워킹, 자료 공유, 정치적인 문제 토론, 경험 공유 등에 관한 내용이 올라온다. 아시아 태평양 동성애자 전자 커뮤니티를 구성하기위한 목적으로서 만들어진 리스트이다.

* QSTUDY-L(LISTSERV@UBVM.CC.BUFFALO.EDU)

동성애 이론, 레즈비언/게이 연구 등에 관한 학술적 토론을 위한 리스트이다.

* RRA-L(LISTSERV@KENTVM.KENT.EDU)

로맨스 소설, 영화, 텔레비전 쇼, 광고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한 리스트이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여성이다.

* RURWMN-L(LISTSERV@BINGVMB.CC.BINGHAMTON.EDU)

농업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 하는 리스트이다.

* SAPPHO(SAPPHO-REQUEST@MC.LCS.MIT.EDU)

게이와 동성애 여성 그룹을 위한 포럼이다. 모든 여성에게 가입이 열려있다. 가입은 여성만 할 수 있다.

* 5.80 SISTAH-NET(ISTAH-REQUEST@HAMP.HAMPSHIRE.EDU)

아프리카계 미국인 레즈비언을 위한 리스트이다.

* SOCPOL-L(LISTSERV@VMD.CSO.UIUC.EDU)

저널지인 'Social Politics :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and Society'의 포맷에 따른 리스트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임에서부터 가족관계, 성적평등까지 국제적이며 학문간의 연계가 필요한 영역을 대상으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 STOPRAPE is(LISTSERV@BROWNV.M.BROWN.EDU)

성차별과 강간에 관한 리스트이다.

* SWIP-L(LISTSERV@CFRVM.CFR.USF.EDU)

여성 철학자 협회(the Society for Women in Philosophy)의 회원과 페미니스트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교류와 토론 리스트이다.

* SYSTEMS(SYSTEMS-REQUEST@DECWRL.DEC.COM)

여성 컴퓨터 과학자들이 연구와 경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포럼이다. 여성만이 가입할 수 있다. 학계, 산업계 여성들이 주로 참가한다.

* WHAM!(LISTPROC@LISTPROC.NET)

절대적인 재생산의 자유, 모든 여성을 위한 질적 의료를 요구하고, 유지하며, 보호하기 위한 활동가 그룹인 'Women's Health Action and Mobilization'의 리스트이다.

* WISENET(LISTSERV@UICVM.CC.UIC.EDU)

과학, 수학,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여성을 위한 리스트이다.

* WISHPERD(LISTSERV@SJSUVM1.SJSU.EDU)

여성들이 스포츠, 헬스, 체력 단련,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댄스에 관한 의견교환하는 곳이다.

* WMST-L(LISTSERV@UMDD.UMD.EDU)

여성 연구에 관한 학술 리스트이다.

* WOMEN(MAJORDOMO@WORLD.STD.COM)

일반적인 목적의 리스트로서, 모든 여성 그룹과 여성관련 있는 영역의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리스트이다.

* WOMENS-STUDIES(MAILBASE@MAILBASE.AC.UK)

영국의 여성 연구 네트워크 협의회(the Women's Studies Network Association)의 회원과 여성 연구를 하는 학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협의회, 최근의 간행물에 관한 정보, 공지 등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메일본문에 Join womens-studies라고 해야 한다. 'subscribe'가 아닌 'join'이다.)

* XXANDLAW(OWNER-XXANDLAW@LAW.WISC.EDU)

법을 전공하는 여성을 위한 리스트다. 여성에게만 열려있다

참고자료1

NCSA Working Group On Women, Censorship, & "Pornography"

■ What is the Working Group?

There is intense disagreement among feminists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should be legal restrictions on sexually related expression. The Working Group on Women, Censorship, & "Pornography" was founded in 1992 to oppose the myth that censorship is good for women, that women want censorship, and that those who support censorship speak for all women. We do not think censorship can ever be a remedy for discrimination or violence against women. In short, Censorship Hurts Women.

■ What are our beliefs?

We believe we shouldn't allow government to tell women or men how we should think or write about our lives, including our sex lives.

We think those kinds of laws are not good for anyone, and we know they are bad for women. Historically, women have always been harmed by censorship. In the name of "protecting" women from "smut," birth control information has been withheld; works of art have been removed from display; books that describe women's bodies, sex education, and information about AIDS have been banned.

Working Group members reject the suggestion that women -- or any other disadvantaged group -- must limit our freedoms in order to achieve equality. We consider that philosophically unsound and cruelly discriminatory.

■ Why is the word "pornography" in quotation marks?

Within the name of the group, "pornography" is in quotation marks because the word is generally used as though it has a widely accepted meaning. But in fact, there is little agreement on its meaning, and it has long been used to suppress literature, art, sex education, and information about women's sexuality. Most conservatives and some feminists have been using the term as though sexually related expression is inherently "subordinating" or "degrading" to women.

■ Sex Panic

A Working Group conference. The Sex Panic, was held in New York City in the spring of 1993. It brought many diverse feminist perspectives, including artistic, academic, literary, educational, political, historical, and others, to our shared belief that the First Amendment is good for women.

■ Sex Panic Reports

Where are the feminists who oppose censorship? The women -- artists, writers, therapists, lawyers, educators, sex industry workers, and activists -- who believe censorship of sexually related expression is dangerous to women? Where are the historically informed, legally sophisticated, and politically impassioned voices linking women's freedom and sexual free speech?

Their voices were heard at The Sex Panic, a Conference on Women, Censorship, and "Pornography," May 7-8, 1993. There, through one of the Spring's most glorious weekends, over 170 representatives of a growing movement of anti-censorship feminists, sat, rapt, in the auditorium of the Graduate Center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They were informed, entertained, and provoked to find creative feminist ways of thinking about and acting against censorship.

"We can't allow these myths to continue," said National Coalition Against Censorship executive director Leanne Katz, "-- the myths that censorship is good for women, that women want censorship, and that those who support censorship speak for women. That's why NCAAC's Working Group formed," she said, "and why this conference was organized."

In a day and a half of invigorating talk, four major themes emerged:

Sex panics -- when "license" and "perversion" are found hiding under every bedcover, and religious and political vice squads mobilize to wipe them out -- are not new. Nor are unholy alliances between women's advocates and morality cops. And none of this has ever been good for women.

The contemporary anti-pornography movement among certain feminists is growing more sophisticated, theoretically and tactically. Its goal to "protect" women, at the cost of making less free, is gaining adherents in many quarters.

Contrary to the terror-mongers' claims, widely available and varied sexual speech and imagery are good for women. They're even often good for kids.

We're fighting back -- for free speech and freer women.

(1) Sex Panics are not new -- and they're never good for women.

While feminists have been divided over current "sex wars," feminist historians have almost without exception been opposed to censorship of pornography. "Why?," asked Lisa Duggan, historian, journalist, and Brown University professor. "Because they'd seen it before," in late-19th- and early-20th-century protectionist women's movements. Then, as now, energy was diverted from serious problems of women by focusing on a quick fix. The temperance movement turned women's anger against domestic violence to a campaign to ban alcohol. Rape and abuse went on unabated.

In the social purity movement of that era, women concerned with the economic and sexual vulnerability of young urban women joined forces with conservatives "whose aim was to

enforce morality and not to protect women." The result: laws suppressing prostitution, which operated to penalize prostitutes, making many women's lives harder and more dangerous. Feminist historians are not surprised when, similarly, the restrictive measures of anti-pornography proponents Catharine MacKinnon and Andrea Dworkin are pushed by Christian fundamentalists and others on the right, whose agendas are explicitly anti-feminist and anti-gay.

Canada's Supreme Court, in its 1992 Butler decision, applied MacKinnonesque language to old definitions of obscenity. Holding that a group of videos were "degrading" and "harmful" to women, the court set equality principles in opposition to free speech and said equality considerations overrode the Canadian Charter's free speech guarantees. In the decision, the claim that pornography "harms" women was unsupported.

Although the decision was hailed as a great victory for feminist anti-porn forces, "the Butler decision belongs to the Right," said Thelma McCormack, professor of sociology at York University in Ontario and director of the Centre for Feminist Research.

"The Supreme Court of Canada doesn't give a damn about gender equality," she continued. "It is concerned about control and was pleased to have a feminist gloss put on it." Not surprisingly, "the fallout [from Butler] has been harassment of gay and lesbian bookstores," including the seizure of *Bad Attitude*, a lesbian-feminist magazine of sexually explicit expression.

(2) Our opponents want to protect, not liberate, women -- and Surprise! This is a wildly popular idea.

To Wendy Kaminer, author of *A Fearful Freedom: Womens Flight From Equality*, MacKinnon's is not a legal theory: "Her great contribution to the pornography debate was to declare the First Amendment irrelevant." Rather, said Kaminer, MacKinnon's is "a very traditional theory of gender difference [which argues that] pornography is not speech, because men are beasts. When confronted with misogynist literature, they are seized with the irresistible impulse to act it out. It is not simply that pornography is bad, it is the combination of pornography and men that's bad, because men are bad." So women need protection from men, at any cost.

Kaminer said, however, tha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appeal of MacKinnon's approach. "It feels like fighting back, not asking for protection," Kaminer said. In reality, instead of dealing with urgent issues such as rape and domestic violence, we see "a growing belief in womens fragility...As a writer," Kaminer said further, "I like to think words have power but I know they don't cast spells."

Speaking from the floor, Lance Lindblom, president of the J. Roderick MacArthur Foundation, disagreed that MacKinnon's theory has no jurisprudential force. "They are weighing equality against free speech," he said, "and there are bases [for this argument]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Dangerous new alliances are forming around it."

Carole Vance, whose analysis encompasses both speech and sex, sees conservative anti-vice groups and anti-porn feminists as neither impossibly strange bedfellows nor birds of a feather inevitably flocking together.

Reviewing the events of 1982-1992, Vance, an anthropologist, co-founder of FACT (Feminist Anti-Censorship Taskforce), and major feminist theorist on sexuality and politics, analyzed how "pornography moved from inside feminism -- where it was only one strand in

a...multi-layered discourse about sexuality -- into mainstream politics, to be used by conservative groups as a major weapon to overturn feminist gains." Conservatives' cooptation of anti-porn feminism, beginning with the Meese Commission on Pornography, was certainly "implausible," given their hostility to everything feminism stands for. It was "brilliantly executed," and abetted by anti-porn women's willingness at those hearings "to understate and frequently [to avoid] mentioning their support for those cranky feminist demands, so offensive to conservative ears."

Then, and afterward, "'degrading' [became] a true crossover term," said Vance. It was used by feminists to mean suggestive of a servile female sexual role and by vice-squad types to mean and "immoral," increasingly conflated into one.

The Meese Commission appropriated women-against-pornography's language and methods to modernize its anti-obscenity agenda. This "new" rhetoric was then used by conservative forces in the attacks against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nd in 1992, in support of the Pornography Victims Compensation Bill, which scapegoated pornography for real violence against women. MacKinnon et al. have kept a "cosmetic distance" from these efforts.

Vance applauded the scholars, sex workers, artists, AIDS activists and educators pursuing an ever-more-robust discourse on sexuality -- one that eschews prescription, respects difference and complexity, seeks ways to combat danger and celebrates pleasure.

(3) Sexually related expression can be good for everybody -- for women, for men, even sometimes for kids.

"Women are more in danger from the repress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s than from their free expression," said Leonore Tiefer, psychologist, sex therapist and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Sex Research. Tiefer stated that "freely available information, ideas and images" are crucial if women's ignorance and shame are to be lessened and new attitudes and behavior substituted. "Pornography is, if anything, sexually transgressive materials," and... "what's needed is more transgressive opportunity, not less."

"Pornography is about fantasy," said Tiefer. If it is suppressed, "women will never get a chance to learn things about themselves that they can only learn from understanding their imaginations." Taking porn literally -- as the anti-porn feminists do -- does not serve this end. "Suppressing pornography will harm women struggling to develop their own sexualities because history teaches us that any

crackdown on sexuality always falls the hardest on the experimental and on women..." For example, more information is needed to encourage safer sex practices that will prevent HIV transmission, and women in sex industry work are harmed from pressures for suppression, since it further marginalizes and stigmatizes their work.

Tiefer said that legal restrictions on explicit sexual expression will "force erotic experimentation in art, video, books and performances underground, which will deprive most women of access to unconventional inputs to their erotic imagination... Now is the time for more sexual experimentation, not shame-soaked restraint."

Tiefer reminded the audience that pornography is not just about representation. It is about masturbation, which the Right finds extremely threatening. If our society is going to place enormous weight on sex as a central factor of identity -- a view Tiefer doesn't necessarily endorse -- then, she says, "we have got to teach masturbation, because it is the route to self-learning of how the body works... and a freeing-up of fantasy." Yet "there's no training,

no coaching, no emphasis on talent" -- a problem, she said. "But if you want to play Rachmaninoff, you have got to practice the piano!"

Feminist artist Connie Samaras demonstrated the non-literalness in the way we view erotic images by showing slides of photographs by five artists whose work concerns the body and sexuality, including gay and S sex and childhood sexuality. Because there is little discussion and little understanding on the anti-censorship side, Samaras said, the discourse over marginalized sexual practices "is literally handed over to the Right." On childhood sexuality, we are all but mute. If an artwork even suggests kids are sexual, the artist risks ridicule, professional exile, and even criminal charges.

Young people are greatly hurt by the suppression of sexual speech, said Debra Haffner, executive director of SIECUS (the Sex, Information, and Educational Council of the U.S.); describing the new right-wing anti-sex curricula SIECUS calls "fear-based" education. The "bottom line of these programs is to scare kids into abstinence" -- with threats that premarital sex causes everything from the blues to death -- "and to withhold information" -- about abortion, contraception, masturbation, and sexual feelings, including homosexuality. Among the lessons taught kids are that "boys are always turned on," and girls are asexual. Anatomical diagrams given students often omit the clitoris.

If the audience needed more proof that "pornograph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or that open speech about sex is valuable and necessary, children's book author Judy Blume gave it to them in the words of the youngest beneficiaries of straight talk, who are also among the worst victims of its suppression. In a moving and witty talk, "Is Puberty A Dirty Word?," Blume recounted the deluge of attacks on her books by those who think kids shouldn't read about menstruation, masturbation, sexual excitement, alienation, confusion, or anger, or see words like "asshole."

Censorship hurts authors, said Blume, one of America's most censored, but it hurts kids more. "Dear Judy," wrote a 13-year-old. "My mom never talks about the things young girls think most about. She doesn't know how I feel. I don't know where I stand in the world. I don't know who I am. That's why I read -- to find myself." Another asked for the facts of life, in number order.

Blume is amused. But she is also "disheartened" and angry. "We have the language police, we have the sex police. We have the adults so worried about everything, they have no time to worry about the kids."

And some kids who write Blume need worrying about, badly. Blume gets many letters about incest, like this one: "I felt like I didn't deserve anything good to happen to me, ever. I didn't eat much. I would only talk if I had to. I wished myself dead... I bite myself, scratch myself, make myself sick, wishing someone, primarily teachers, would ask me if something was wrong... but no one came to me." Blume and her staff answer all letters and assist kids like this one in finding help.

Blume, who's been writing for about 25 years, said that if she were starting out today, "I might find it impossible to write honestly about kids in this climate of fear." In fact, she confessed to having censored herself when an editor suggested, "Take this passage out, and we'll get the book club sales." Said Blume, with a tear: "I've regretted it."

Today she refuses to self-censor. She pressures her publishers to stand up against censorship, and speaks frequently in public.

"By not having courage, I lost my chance," a girl who could tell no one about incest against her lamented to Blume. Added the author, on censorship: "By not having courage, we all lose

our chances."

(4) We're fighting for freedom.

Fortunately, many do have courage.

Artist-curator Carol Jacobsen fought back when Catharine MacKinnon's theories were put into practice. MacKinnon's student foot soldier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banned the art exhibition they'd invited Jacobsen to mount at their conference on prostitution this year.

Jacobsen's exhibit, *Porn Imagery: Picturing Prostitutes*, a show that included sex workers' first-person views, features seven artists including Jacobsen, and "represents a strong feminist statement in favor of decriminalization and destigmatization of prostitution." Wary about contributing to what she suspected would be an anti-prostitute and anti-porn pep rally, Jacobsen was nonetheless eager "to counter MacKinnon's archetypal construct of the prostitute as a repentant, victimized...woman in need of saving."

But once on exhibit the show quickly received the censors' stamp. Only male anti-porn activist John Stoltenberg ever saw the work he judged "pornographic," but the show was called "threatening," and the law students, after meeting with MacKinnon and Dworkin, insisted that it be dismantled.

Jacobsen, a long-time feminist fighter against censorship, was appalled that this breach of free speech could be allowed to happen at a university, let alone at a law school. She was unwilling to go quietly: "They really fucked with the wrong woman." With help and publicity from the ACLU, the National Coalition Against Censorship, the National Campaign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FACT she fought back. A law suit against the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brought a settlement, including a modest money award to the artists, an agreement that the exhibit will be remounted in the next school year (MacKinnon's students have vowed to protest it) and a program organized on feminism, art and censorship.

"MacKinnon's abuse of power is stunningly hypocritical," said Jacobsen, "given her position that there ought to be a law against abuses of power."

When Gloria Pipkin, an English teacher in Panama City, Florida, decided to fight to keep a wide array of literature in the classroom, she faced a deeply conservative community, a fierce group of Christian fundamentalists including a school superintendent who believed "schools are no place for any sort of controversy" and legal precedent giving school boards broad censorship powers. Warmly acknowledging NCAC's support, Pipkin reported on the dramatic and intense struggle in which she and her comrades engaged, even facing death threats. After five years, a lawsuit in federal district court was settled, without stunning victory. Although the books (including *I Am (The Cheese, The Red Badge of Courage, and Hamlet)* were restored to the schools, policies for adding new books are so constraining that teachers "either choose the blandest books possible, chicken out...or decide to ignore the policy and live in fear."

Pipkin is still fighting. "One thing I've learned is that democratic schooling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not a gift of the gods. It's a battle that's won on a daily basis."

What motivates the censors? "Fear," said columnist and best-selling author Molly Ivins. In consummate Texas style she told the tale of two boys so spooked by a chicken snake in the henhouse that they lit out simultaneously, "doing considerable damage to themselves and the henhouse door." One of the boys, reminded by his friend's Ma that "You know damn well a chicken snake cant hurt you," responded, "Yes, Ma'am, but some things can scare you so much that you'll hurt yourself."

"In this country," Ivins said, "we get so scared of something terrible -- of communists or illegal aliens or pornography or crime that we decide the only way to protect ourselves is to cut back on our freedom...Well now, isn't that the funniest idea -- that if we were less free we could be safer?"

Taking the position that one can be against porn and against censorship at the same time, Ivins said, "We've all read the studies [of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saying yes it does, no it doesn't, yes it does, no it doesn't. You could just shit or go blind trying to figure that one out." She said "common goddamn sense" tells her "there probably is some truth to the theory that all those ugly pictures do encourage violence against women.

"So what should we do about it?" Ivins asked. "Well, my answer is: not a goddamn thing. Except, of course, speak out. The cure for every excess of freedom of speech is more freedom of speech."

There were plenty of other proposals during the weekend. Performance artist Penny Arcade exhorted the assembled to march to The New York Times and demand they cover the conference. Poet and activist Kate Ellis explored applying the principle of Tai Chi, which turns the opponents' own force against them.

And Ann Lewis, political consultant and commentator, was concise and concrete:

"Join in the debate. Women identified as feminists must speak out about why censorship is a bad idea."

"Carry the debate to the state and local level," where grassroots right-wing movements are gaining strength.

■ What have Working Group members said?

If I were starting out now, I might not even write children's books. In this climate of fear, I might find it impossible to write honestly about kids."--Judy Blume, author

"Zealots will always want to enforce their position. And zealotry I think is a a greater danger to women than pornography."--Erica Jong, author

"Sexual freedom and freedom for sexually explicit expression are essential aspects of human freedom." --Nadine Strossen,

professor, New York Law School and president, ACLU

"Women are more in danger from the repress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s than from their free expression." --Leonore Tiefer, psychologist and sex therapist

"It was not that long ago when the representation of lesbian relationships on stage was illegal in New York City." --Jewelle Gomez, author, poet, and activist

"How long will it take oppressed groups to learn that if we give the state enough rope, it will wind up around our necks?" --Ellen Willis, journalist and professor, New York University

"To introduce censorship in the U.S. in the guise of suppressing pornography is extremely

dangerous to women... If anti-pornography legislation were passed, the first targets of it would be feminist books... giving women control of their own bodies." -Betty Friedan, author

"For sexual discussion to move so quickly from the criminal and pathological to the realm of the creative and political is phenomenal, a triumph of honesty and democracy over hypocrisy and elitism." -Susie Bright, author and activist

"The pedestal has always been the pits, and women remember that when told that they need "protection" from sexual words and images" -Sandy Rapp, musician and activist

■ What You can do

Spread the word by speaking out on the dangers of censorship for women. Distribute NCAC materials on women, censorship, and "pornography" to your friends and colleagues, and at conferences, lectures, and other events.

Ask for our one-page flyer, Censorship Hurts Women, a succinct but convincing statement challenging the myth that support for feminism means support for censorship. Order in bulk and distribute.

Organize programs on censorship's harms to women. Ask us to help with speakers.

Beware of censors bearing jgfts. Disguised by promises of bettering women's lives, censorship can look attractive. Be vigilant in opposing suppression, whether by the federal government, on campuses, in museums, or in public libraries and schools.

Write letters to the editor and to legislators when they propose laws to "protect" women from "pornography." Send us copies of your correspondence.

참고자료 2

Sara Norman의 견해

■ Women and the Censorship of Pornography

"Pornography, in the feminist view, is a form of forced sex... an institution of gender inequality... [P]ornography, with the rape and prostitution in which it participates, institutionalizes the sexuality of the male supremacy."

--Catherine MacKinnon, "Not a Moral Issue", Yale Law and Policy Review 2: 321-45, at 325 (1984)

"Historically, information about sex, sexual orientation, reproduction and birth control have been banned under the guise of... the "protection" of women. Such restrictions have never reduced violence... Women do not require "protection" from explicit sexual materials."

-Feminists for Free Expression, letter to the members of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14 February 1992.

The debate over pornography among modern feminists is a bitter one. Some, like MacKinnon and Angela Dworkin, accuse pornography of universally exploiting women, no matter whose body is being photographed (Dworkin also protests against homosexual male pornography); others, like Pat Califia and Nadine Strossen, point out that pornography and violence and not necessary results of each other: in fact, most research proves that exposure to even violent sexual material is no more of an incitement to violence than any other kind of viewing material:

"Surgeon General Koop's survey concluded that only two reliable generalizations could be made about the impact of exposure to "degrading" sexual material on its viewers: it caused them to think that a variety of sexual practices were more common than they had previously believed, and it caused them to more accurately estimate the prevalence of varied sexual practices."

--Edward Mulrey and Jeffrey Haugaard, Surgeon General's Workshop on Pornography and Public Health. (Arlington, Virgini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86.)

Correlating these findings, studies don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sexual violence and the availability of violent pornography in several countries have also posited no real or reli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enmark, Germany and Japan all have violent pornography in readily accessible stores and suppliers, and all have much lower actual sexual assault cases reported than in the United States. (Note: Reported, of course, is a long way from Real! But at least in Denmark and Germany, the general status of women in the legal profession seems to indicate that women who have been sexually assaulted would have a relatively friendly legal support system to turn to), and in countries like Arabia, Iran, and China, where the sale or purchase of any kind of pornography can be considered a capital offense,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re disgustingly common.

Protesting against pornography as a way of protesting against unfair and sexist social conditions may be hurting women far more than it is helping. If the pornographic body is the body of the naked, sexual woman, to eradicate pornography is to eradicate the sexualized woman; and to remove women from the sexual gaze is to remove their bodies from the public

sphere -- a return to another kind of oppression by silence. As the quote from "Feminists for Free Expression" points out, the censorship of sexual materials has historically been used to keep women from being able to control their own sexualities under the guise of "protection" -- equating them with children.

■ Site Self-Selection

"Voluptuaries of all ages, of every sex, it is to you only that I offer this work . . ."

--The Marquis De Sade, introduction to "Philosophy in the Bedroom", emphasis mine.

"Philosophy in the Bedroom", De Sade's most widely-read work, is the story of the sexual and moral corruption of an innocent (but "yearning") woman into a philosophy of atheism, sadism, and total self-absorption; presumably, in accordance with the narrative plot of the story, it would be aimed at the "unsuspecting reader", who could then be seduced by the graphic sex of the story into a similar world view. But from the first line of "Philosophy", De Sade proclaims that he has selected his audience for his work; but the truth is that they selected him. It's hard to be an "unsuspecting reader". Books, by virtue of their cover, title, author, first words, -- even the paper they are printed on and their method of acquisition create a kind of contract with their reader; they tell you what to expect from them. It's a large part of why we buy them. We've even created a word "genre", to describe the nature of that contract -- if you buy a "horror" novel (usually identifiable by use of a disturbing cover illustration, "dripping"-type text on the cover, and a often a really bad title), you the reader can reasonably expect scary or gruesome things to happen. Life has taught you similar lessons with romance novels, self-help books, "classic" novels, the new "legal thrillers", textbooks . . . many aspects of their physical appearance advertises what they are, and attracts the attention of the potential buyer. Quality is advertised by means of binding and paper -- no matter what you may think of Umberto Eco's writing, his books are certainly being sold as classics, and you tend to react to them as such. Whether or not this is a cause-or-effect relationship can be debated, but the principle remains: in the printed world, you believe something to be what it performs being, and you react to it accordingly.

De Sade knew anyone who picked up his story that didn't want to be reading it would simply put it down -- always the reader's prerogative, in the novel or on the net -- and worded his text accordingly, creating the illusion that he somehow selected you rather than the obvious reverse. De Sade, apparently much to his chagrin, has no real power here besides what the reader gives him. No writer, or programmer for that matter, has the power to keep any viewer against their will. As long as a book must be opened, or a link must be clicked, and we live in a world with "off" switches, the power always lies with the recipient, not the sender or creator, of the material in question.

So the fear of pornography, for children and adults, seems to lie in its apparent "seductive" quality -- pornography is defined as material designed to affect and arouse the body as well as the mind, and if it comes in contact with a mind that is either too immature or otherwise somehow lacking in sophistication to make a reasonable decision about what it presented, this unprepared viewer will be somehow symbolically assaulted or statutorily raped by the material. The person behind this pornography is then posited as the instigator of the assault, even when the viewer requested the material. Historically, pornography has always been used

to confront stereotypes and political ideologies along with providing pleasure. It seems to be this combination of pleasure and principle that lies behind much of the desire to regulate pornography.

■ Historical Perspectives on Pornography

"[I]f an attitude of permissiveness were to be adapted regarding pornography, this would contribute to an atmosphere condoning anarchy in every other field" --Richard Nixon, 1970

In Lynn Hunt's *Invention of Pornography* (Zone Books, New York, 1993) Hunt points out how pornography has always closely followed political upheaval and revolution, and theorizes even that its existence is vital to democracy . . . pornographic depictions of religious and political figures have often proven vital to the over-turning of their institutions. Pornography has historically possessed the ability to weaken state authority; and governments have reason to fear it accordingly -- all the more reason that people should recognize the necessity of totally free speech in a society. A society where the government is given the ability to legislate pleasure and sexual arousal is one where its inhabitants are controlled in respects to their sexual identities, and therefore their social identities as well. Victorian chromolithographics like this in the 1840s challenged the notion that Victorian women were totally sexually passive creatures; the women here may be posing for the male gaze, but she is also enjoying her own. Positing a woman as a creature of independent sexual agency was a brash political and social statement in the 1870s (and perhaps it still is.) Does she represent exploitation, or a figure of liberation?

■ Censorship of Pornography on the Internet

"If you love freedom and like sex, censorship is bad news." --Kathleen Peratis, women's rights attorney Arguments for the censorship of pornographic material usually center on two issues: abuse of children, and exploitation of women. This pathology of protection may do as much to hinder as to help progressive thinking about the real protection of a society --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speech and thought.

■ Children and the CDA

On December 28, 1996, the first shoe dropped:

Excerpt from the *The Economist*, 1/6/96:

"Remember how the Internet was going to corrupt young people by evading laws, parents, and policemen to import pornography weightlessly and unstoppable through cyberspace? On Christmas eve the internet became a way of importing censorship instead. A prosecutor in Munich told CompuServe . . . that about 200 of the net's sex-related "newsgroups" violated German law . . . CompuServe thereupon shut off all access to the newsgroups. But not only in

Germany. Because the firm had no way to tailor Internet content just for German subscribers . . . it was forced to apply the rule everywhere in the world, imposing upon all of its subscribers the standards deemed appropriate for the 7-year old Barbarians."

And that same month, Business Week ran two stories on facing pages: one about the merchandising of children's computer equipment, entitled: "Babes in Toyland: Can Compaq turn the PC into a plaything for tots?", across from a story addressing the Compuserve shut-down, called "Alt.sex.bondage is closed. Should we be scared?" The "Babes" article features a picture of a child playing a computer game with an oversized, colorful, indestructible-looking keyboard. The facing picture is of a man with a computer cable tied into a gag around his mouth: bondage in protest of a restriction of bondage. The juxtaposition of these two pictures, childhood innocence across from adult censorship, is indicative of the typical argument made in America, Germany and elsewhere for internet indecency censorship -- somehow that man from the "alt.sex.bondage" picture is going to cross the page into the children's picture and molest her with evil computer pornography. This evocative narrative exists in a variety of medias and mediums: from recent articles in Newsweek with dramatic titles like "Sexy F seeks hot M: A Mother's Tale" to numerous television news segments about the supposed plethora of internet pornography and the children corrupted by it, to even a Christian family video tape intended to "inform the public" as to the child abuse occurring all around us every day due to the "free" nature of the internet, and the ver-increasing potential for more abuse.

A few months later, the second shoe followed. Reacting largely to just such narratives,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was passed by congress and signed into law by the president. Few people would challenge the right of a parent to control what their child sees on the computer and when. But the CDA limits the viewing rights of all people in the U.S.

■ Political Pornography

In 1986, the Regan Administration appointed the Meese Commission to give a report to congress and the nation about the state of pornography in America. Fordham University Professor Walter Kendrick points out:

"[T]he Commission provided 300 pages of summaries and descriptions, some with dialogue: "I want to taste your cum.

I want you to come in my mouth. I want to feel your hot cum squirt in my mouth," and much, much more in the same

vein. No doubt this established a landmark in the history of government publications." --The Secret Museum: Porn in

Modern Culture New York: Viking, 1987, p 234.

As the above passage illustrates, perhaps one of the greatest ironies of the anti-pornography crusade is that one must examine a lot of pornography very closely in order to protest against it. The Meese Commission reviewed over 725 books, 2,323 magazines, and 2,370

hard-core pornographic films before coming to the conclusion that access to pornography needed to be restricted for most Americans, as it incited "violent feelings towards women" and caused a threat to the American family. Interestingly, the Meese Commission never seems to fear that they themselves will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huge volume of pornography they are exposing themselves to. Assuming that "other" people will be incited to violent or criminal acts by pornography is historically a very political move -- targeting certain groups of people by their (stereotypical) arousal-patterns is an effective way of marginalizing them; declaring all pictures of homosexual men having sex, for example, implies to the American public that homosexuality is "less okay" than heterosexuality, and the homosexual male body is a deviant thing in need of repression because of the danger it represents to society.

■ Naked Women Online: What's the Problem?

If there is reason to be nervous about the female body being under-represented in the virtual spaces, it is because she has a form and no voice. The pornographic body is both loud and silent -- (s)he commands attention through the force of sexual interest, but her political and social importance are often underplayed or over-looked as a way of minimizing her influence. In response, I would like to celebrate the pornographic body; to give it a voice by calling attention to its very social

existence and importance by celebrating the diversity of the pornographic body on the net -- bodies of men, women, gay, straight, outlets of magazines, fanzines, photo galleries, and erotica sites, as well as ways to become pornography -- net offerings of clothing and toys for both sexes that further help to blur the lines surrounding the pornographic body, and merge it into the social one.

별첨자료 |

정보를 공유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 한 문화 평론가의 '네티즌 공동체' 꿈꾸기

by 정성철

정보를 공유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 한 문화 평론가의 '네티즌 공동체' 꿈꾸기

정성철 · 서울대 미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문학 예술 연구소」 연구 위원 및 「현실 문화 연구」 편집 위원으로 있다. 옮긴 책으로 「역사 유물론의 재구성」이 있으며, 「문화 비평 어쩌해야 하는가」 등의 글을 썼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얼마나 그들의 일상을 장악해야 그 무엇인가가 유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속되고 어떤 의미를 가져야 그 무엇인가가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생산하는 의미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이 되기 위해 우리의 반성과 실천은 어떤 방향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일까?

영향력 있는 두 일간지를 선두로 해서 그 뒤를 일부 케이블 방송들과 잡지들이 뒤따르고 정부까지 맛장구를 치면서 장기 지속될 기세를 보이는, 그러나 좀처럼 차분히 가라앉아 삶의 든든한 일부로 자리잡을 것 같지는 않은 인터넷 붐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들이다. 사실 무엇인가가 유행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일정 수의 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이지 무조건적인 다수가 아니다. 유행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상품에 의한, 상품을 위한, 상품의 리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이 상품을 위해서 유통시킬 때 그리고 그 상품의 사용 가치적 측면보다는 이미지적 측면에 강조점이 두어질 때, 더 나아가 그 이미지의 성격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때 유행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유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운명이다. 유행은 그 사회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회가 그 외의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집단적 연대에 대한 욕구나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따라서 새로운 욕망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에 기능적으로 어울리기만 할 뿐이다. 매체들은 호들갑으로 그 유행을 부추킨다. 최근의 인터넷 붐은 이런 의미에서 분명히 하나의 유행이다. '마인드' 면에서나 물질적 기반 면에서나 거기에는 실질이 없다. 국민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컴맹들을 뒷전에 세워 놓은 채 학교 실습

실의 구축기 PC를 1998년까지 5,000억 이상을 투자하여 신식기 PC—이미 단종된 486 PC!—로 교체하겠다고 땀땀거리던 정부와 코 물은 돈까지 끊어 모으겠다는 심보를 숨김 없이 드러내면서 대한민국이 인터넷이 생활화된 나라라는 인상을 세계 속에 심는 데 기여하는 일부 언론들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인터넷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적실하게 통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낱말이 세계화라는 낱말과 함께 반쪽 한민족의 축급한 화두로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터넷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뿐이다. 그들에게 인터넷은 학업이나 직업의 '자연스러운' 연장선 상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물론 분명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도 사실 이기는 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들이간 노력에 비해 나온 결과가 적다면, 그 결과가 해당 개인에게 아무리 '호뭇한' 느낌을 준다 해도 그 노력에 문화적 의미는 없다. 기십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담배, 술 다 끊고 1년에 서너 번 클래식 음악회에 간다고 해서 그가 고급 문화의 진정한 향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긴밀히 손잡고 있다. 컴퓨터·통신 관련 기업들이야 신문사들이 '알아서' 선전을 해 주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나우콤의 경우 『동아일보』와 인터넷 캠페인을 벌인 이후 수천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얻었다. 언론사들과 제휴하지 않은 경우라도 수많은 컴퓨터 관련 기업들은 언론에 의해 조성된 인터넷 붐의 덕을 톡톡히 본다. "OO컴퓨터로 네티즌이 되자"거나 "△△컴퓨터에 사이버스페이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는 따위의 광고 문구는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결국 인터넷 증후군의 최대 수혜자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캠페인을 펼치는 거대 언론사들과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인 셈이다.

인터넷 붐에 대해 두 번째로 지적돼야 할 문제점은 그것이 정보의 '유통'에만 신경 쓸 뿐 그밖의 다른 부분, 곧 정보의 '생산'과 '평가'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아예 무시해 버린다는 점이다. 사실 인터넷이 붐을 이루기 전에도 정보의 양이 적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매일 배달되는 신문 한 부에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가. 문제는 정보의 중요도와 경중을 가라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내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그래서 요즘을 '노하우(know-how)' 아닌 '노웨어(know-where)'의 시대라고 한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주'를 가려 내는 능력은 정보 시대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욱 긴요한 문제가 된다.

백옥인 씨(『종합 유선 방송 위원회, 연구원』)는 "산업 사회와 마찬가지로 정보 사회의 핵심인 정보는 생산-유통-평가-생산의 순환도를 그린다"면서 "그럼에도 국내외 인터넷 붐은 정보의 유통에만 집중된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한다. 정보의 생산 기반이 취약하면 그것의 유통, 평가 부분 또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의 맹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화의 기반이 필요한 것이다. 전용선을 설치하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물리적' 기반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유통될 디지털 정보, 곧 데이터베이스(DB) 기반 말이다. 정부가 2015년까지 45조 원을 투입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役事)'에서도 DB 구축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 40조 원 이상이 망(網) 구축용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망, 방송 위성 등과의 연계를 통해 망 구축 비용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

다"는 박천일 교수(숙명여대 정보방송학)의 지적은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붐에는 희망의 징후도 적잖게 발견된다. 인터넷 붐은 대체로 미래 지향적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를 짚어질 세대인 대학생들에게는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추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을 겨냥한 인터넷 캠페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언사와 비판이 쏟아지는 반면,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에 대한 인터넷 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도 그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현재 『동아일보』와 정보 통신부, 한국 전산원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학 정보화 랭킹' 작업은, 단순 상대 비교와 평가가 빚을 수 있는 몇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정(正)의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60여 대학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 정보화 랭킹'은 무엇보다 해당 대학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동안 대학 정보화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쏟아온 대학들은 정보화의 가속도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면 정보화 흐름을 등한시했던 대학들은 '시차 교정'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런 평가 작업은 많은 미덕을 지닌다.

국내 대학들의 전산망 구축 수준이나 인터넷 활용 현황은 대체로 일류, 이류 등으로 구분하는 세간의 평가와 비슷한 지형도를 그린다. 한국 과학 기술원(KAIST), 포항공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은 일찍부터 대학 내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축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학문 연구에서도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이화여대의 경우 캠퍼스 내 건물 복도에 PC를 설치, 수강 신청은 물론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의 대출 여부 확인, PC 통신을 통한 정보 습득 등이 용이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의 정보화 수준은 한국의 정보화 수준과 비슷한 지점에 놓여 있다. 『한국 전산원』이 최근 발표한 『96 국가 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미국의 11퍼센트, 일본의 23퍼센트 정도이다. 도처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캠페인과 정보화 바람을 생각하면 초라한 수준이지만 1994년에 비해 많이 나아졌고, 지금도 나아지고 있으므로 희망적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결론은 이렇다. 전체 인구의 70퍼센트 이상이 인터넷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 했다는 스웨덴보다는, 좀 지나치더라도 인터넷 증후군에 걸려 있는 우리 나라가 더 낫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 증후군이 치유 불가능한 증병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선찰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무가치하다"는 스크라테스의 말은, 인터넷 붐이 이는 20세기 반 한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

라면, 1년마다 세대가 교체되는 고성능 PC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고, 제대로 지원도 안 되는 고속 모뎀을 달고, 문제가 많은 '윈도우 95'를 이를 갈아가면서 거뜬히 고고한 서비스 업체를 골라 각종 도구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터넷 접속에 성공하여 환호성을 지르기 위해서는 오로지 피와 땀과 다량의 화폐 그리고 한민족 특유의 은근한 끈기만이 요구될 뿐이다.

폭증하는 전화료와 느린 전송 속도에 질려서 접속하고 싶은 만큼 접속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 양자를 피해 새벽 서너 시를 기다리는 데에도 인터넷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절실한 필요 없이 호기심과 나도 한 번이라는 욕심에 떠밀려 들어 왔다가 다만 없는 게 없는 공간, 모든 금기가 해체된 듯한 공간의 그 스펙터클에 넋을 잃은 채 일상의 자신으로부터의 탈출감만을 만끽하는 데에도 인터넷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크랙들(소프트웨어나 상용 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해서 공짜 등록판으로 만들어주는 화일)과 포르노그라피만을 찾아 돌아 다니는 데에도 인터넷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개인들간의 생생한 소통이, 흐름이, 그것도 매 시간 업데이트 되는 유즈넷 뉴스보다는 화려하기는 하지만 정형화된 틀에 갇혀 있는 월드 와이드 웹에 중점이 있는 것에도 인터넷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은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일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들에는 어떤 정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어차피 초보자들은 고생하기 마련이고 이 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지금보다 더 전화료가 인하되고 전송 속도가 높아져도 인터넷 중독자들은 동일한 이유로 새벽 시간을 찾을 것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따르려 하는 일이나 주체의 황홀한 분열을 즐겨 보는 것도 반성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다. 크랙들이라든가 자본주의 종주국에 알게 모르게 빼앗긴 것들을 다른 형태로 돌려 받는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고 포르노그라피라든가 이미 우리 사회 자체가 충분히 포르노그라피를 담았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월드 와이드 웹에 쏠리는 것은 본바닥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 아직 유행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해서 초기적인 이용 형태들이 지배적이라거나 물질적 기반 자체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 자체가 무슨 큰 문제일 리는 없다. 과장이 다분하고 선정적인 광고로 도스도 정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인터넷으

로 몰아세우는 것도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한 일이다. 더구나 기왕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있는 공간이 되어 '버린' 곳이 인터넷이라면 그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설립자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저마다의 생산적인 목적들이 서로간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로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서로의 능력과 노력을 대가 없이 주고 받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이 인터넷이다. 별다른 추가적인 노력 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일반 이용자들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의무가 따르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인 인간이 안 되어 있는 이들은 미성년 포르노물을 올리고 유대인 학살은 허구이다라는 광고를 내기도 하겠지만 인터넷에 그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권력 따위는 없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인터넷이 권력이라는 중심 없이 거미줄처럼 무한히 뻗어가는 무정형의 아니키즘적 공간, 완전한 언론과 출판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다. 인터넷은 그 대가들과 함께 그 대가들 속에서 지구 사회의 현상상을 넘어서기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적 사유의 실험장. 저마다의 국경과 민족 안에 완고하게 자리잡은 시대 착오적인 특수성들을 타파할 수 있는 교두보로 자리잡을 수 있다.

문제는 오히려, 국내에서도 이미 시작된, 부정적인 요소들을 통제한다는 미명하에 인터넷에 개입해 들어오려는 '외부' 권력의 움직임이다. 그대로 방치될 경우 그 움직임은 확대 재생산 될 것이고 결국 인터넷은 기성의 규범들로 봉합된 또 하나의 숨막히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무슨 우선 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그 개입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것이다.

파란 리본을 달 것! 이것이 네티즌의 첫 번째 좌우명이다. 물론 실력 있는 네티즌들은 통제 만능주의자들의 메인 프레임에 논리 폭탄을 부히며 교훈을 주는 일도 바다하지 않을 일이다. 더 나아가 그 '저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용자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의 성장을 가능케 한 마인드, 즉 정보 공유주의를 본받는 데 망설여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는 정보의 생산과 독점이 억압과 지배를 낳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특히나 절박한 요구이다. 많은 이들의 삶의 경로나 환경과 관련된 정보라면 그 정보는 그 정보의 생산자나 정책 입안자나 사기업들의 손에만 맡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의 마인드도 마인드라거나 사실 공공적인 의미를 갖는 정보들의 소유권을 대규모로 사회화, 국영화! 시키는 데 인터넷만큼 편리한 도구는 없다. 이미 인터넷 속으로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 이윤 추구들과 사적 관심들에 맞선다는 의미에서

도 정보 공유주의적 지향은 진정한 네티즌이라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을 가능케 하는 전제 조건이 바로 네티즌들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연합이다. 더 노력하고 더 능력 있는 네티즌들이 노력할 줄 알거나 더 큰 능력을 갖는 것 자체가 노력이나 능력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는 일종의 생득적 및 환경적 기득권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나보다 노력하지 않고 나보다 무능한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지격으로 '그 좋은 곳'을 휘젓게 하고 다니게 하지는 않겠다며 '파워 유저'로서의 자부심을 만끽하고 싶어하는 한, 그러한 실천들은 뿔뿔히 흩어져 있는 소영웅들이나 천재들의 자기 과시나 일부 선각자들의 외로운 투쟁 이상의 형태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진정한 네티즌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것은 여러 구조적인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드는 '미국애들 천지구나!' 하는 실망 반안심 반의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천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70퍼센트는 차지하고 어찌된 경우인지 흥미로운 정보나 사이트는 죄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듯싶다(물론 가장 '사악한' 내용의 정보들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미국 국방부 네트워크의 확장판으로 시작된 것이 인터넷인 데다가 최고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나라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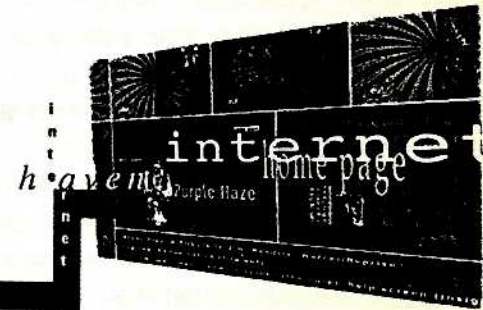
분명, 인터넷을 한다면서 자국민들끼리만 모이는 것도 볼썽



천국과 지옥을 극단적인 양 거주지로 하는 인간의 온갖 가능한 모습들이 춤추는 곳. 그 곳이 인터넷이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인터넷이 권력이라는 중심 없이 기이종처럼 부합이 부어가는 무정형의 아나키즘적 공간. 원천의 인본과 출판과 건설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해 최선이 될 대가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네티즌들의 연합으로서의 인터넷이라니, 그 얼마나 아무진 꿈인가 말이다!

사납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영어로 된 정보의 수동적인 이용자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려운 한편 인터넷의 '능력'이 신장을 거듭할수록 일부 영어 능통자들의 '지식 권력'은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인터넷을 관리하려는 정치 권력의 움직임과 결합되거나 거기에 종속된다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민주주의는 먼 거리를 후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용자들이 문자 정보보다 문화, 식민지화의 위험이 훨씬 큰 멀티미디어 정보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도 뻔한데, 이러한 경향은 케이블 모뎀을 통한 초고속 전송이 가능한 시점이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의 미래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장미빛만은 아니다. 더 통제받으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헤 헤거리며 살아야 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



른다. 다시 말하지만 결국 인터넷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순수한 가능성의 공간이다. 인터넷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일본인에게 '우리 이웃 토로'의 주제곡 미디 화일을 보내 달라고 메일을 보냈던 때가 생각난다. 그 미디 화일은 채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상당한 답장과 함께 메일함에 도착해 있었다. 그러나 그 인터넷은 또한 "내 귀여운 조카를 어떻게 하면..." 따위의 최악의 구문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곳이기도 하다.

천국과 지옥을 극단적인 양 거주지로 하는 인간의 온갖 가능한 모습들이 춤추는 곳. 그 곳이 인터넷이다. 어쩌면 그리 오래 전도 아니지만 일일이 자판을 두드려 가며 유닉스에서의 그 광고도 없고 정신을 속 빼 놓는 그림도 없었던 맛있는 텍스트 화면으로 세계를 유랑하던 때를 아련하게 그리워하지 않게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자유롭고 평등한 네티즌들의 연합으로서의 인터넷이라니, 그 얼마나 아무진 꿈인가 말이다! ■

별첨자료 II

정보양동이란 무엇인가?

Copyright by 김형준

-- PD통신 참세상

정보화사회/정보민주주의(SDP 6 3) [777/718]
제 목: [정보운동]정보운동이란 무엇인가?
올린시간: 96.10.10 09:43:08 조회:27

이대학보사에서 기획중의 하나입니다.

정보운동이란 무엇인가?

Copyleft by 김형준(PC통신,참세상)

두흐름의 정보운동

산업화라는 화두가 사라지고 정보화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정보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사회의 다양한 집단은 자신의 존재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사회의 지배집단의 정보화운동이 있고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사람들의 정보운동이 있다. 언론재벌과 신문재벌의 뉴미디어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정보화운동은 겉으로는 컴맹퇴치운동, 정보거지추방운동이라는 형태를 띄면서 사회의 경쟁력강화 및 밑으로부터의 정보화(?)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어떤 말로 아름답게 치장하더라도 그 본래의 성격은 사이버스페이스 라는 새로운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기 위한 소비자확보운동이자 자본의 경쟁이라는 본질을 감출 수는 없다.

이에 반해 사회적 변혁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정보운동은 자본주의의 모순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의 정보화가 사적소유라는 본래적 성격의 변화가 없는 자본주의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자본)의 독점심화와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통제와 감시의 강화 라는 정보화의 부정적 모습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부각되는 모순에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의 투쟁이 곧 정보운동이다.

처음에 정보운동은 정보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해커로부터 가상공간에서 출발하였다. 70년대 아직 권력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가상공간에서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관심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또다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국가권력이 이러한 자유주의적 행동을 해커 라는 범주로 부당하게 탄압하면서 정보사회주의자들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만들어 냈다. 이것이 미국 EFF(Electric Frontier Foundation)이고 정보운동의 출발이 아닐까 한다. 물론 정보운동은 다양한 형태를 띄면서 발전해왔지만 대개 자본주의적 정보화에 대응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반저작권운동, 정보공유운동

정보의 상품화 및 정보의 독점에 맞서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반저작권(= copyleft *)운동이다. 대개 반저작권운동이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반저작권 운동으로 대표되지만 반저작권운동은 소프트웨어에 한정된 프로그래머 의 운동만은 아니다. 구텐베르크프로젝트와 같이 인류의 문화적 자산을 개개인의 힘을 모아 전자정보를 만들어 모두에게 공

개하는 것도 이런 움직임에 속한다. 그러나 반저작권운동은 사적소유에 대항하기하지만 사적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소수의 독점자본이 저작권 혹은 지적자산을 이유로 사회의 공공자산을 모두 사유화되는 막기위한 대항운동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반저작권운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 개인의 소유물= 창작물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 - 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copyleft는 공개된 copyright란 의미를 가진다. 즉 copyleft된 저작물에 대한 누구든지 아무런 비용의 지불없이 이용, 편집 혹은 수정이 가능한 copyright이다. 다만 저작권자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독립네트워크운동

사회적 소통매체의 독점 및 사회통제의 강화에 대응하고 사회운동의 독립적인 소통 및 연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네트워크운동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은 미디어의 통합과 거대화이다. 특히 뉴미디어시장을 확보하려는 다국적기업간의 M&A는 예상을 넘어설 정도이다. 우리의 경우 마찬가지다. 보수매체들이 앞다투어 인터넷에 뛰어 들고 있고 대기업들은 PC통신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어느정도 공적인 기업들이 운영해오던 뉴미디어가 대규모자본으로 대치되고 있다. 이속에서 시민사회의 소통공간,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소통공간, 연대공간의 확보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미국의 Labornet나 Women-net 혹은 영국노동조합회의인 TUC의 독립네트인 TUCnet등도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국제적인 독립네트워크협의체인 APC(Association of Progressive Communication)에 정회원 및 준회원자격을 갖고 있는 나라도 전세계 21여개국에 이르며 133개국의 독립네트워크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보기본권운동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가상공간(=사이버스페이스)의 중요성은 현실공간만큼 중요해진다. 그러면서 현실의 다양한 문제 역시 가상공간에서 그대로 투영된다.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성적 불평등이 그대로 가상공간에서 반영되고 있고 이러한 불평등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려는 것이 정보기본권운동이다. 요즘 한총련CUG폐쇄로 인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검열철폐운동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보기본권운동의 하나이다. 또한 01410접속료인상에 대응하여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주장한 01410대책위의 활동도 역시 정보기본권운동이다.

표현의 자유, 사생활보호의 자유(Privacy), 공적접근권(Public Access)등을 보편적 인권으로 쟁취하고 하는 운동이 바로 정보기본권운동이다.

정보운동의 주체는 네티즌이 아니다

흔히 정보운동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PC통신에 아이디를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이버스페이스에 적을 둔 네티즌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고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보운동은 네티즌의 몫은 아니다. 모든 사회운동이 그렇다듯이 정보 운동도 역시 삶의 문제이고 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모든 사람의 운동이다.

전업주부이면서 가내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은 현실만큼이나 정보화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이들의 문제가 여성 개인에게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시킨다고 해결 될 수 있을까? 민간단체에서 혹은 국가기관에서 여성

노동자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정보화사회속에서 가내 여성노동자를 사회적 정보거지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은 정보운동이며 여성운동이다.

정보운동은 정보화라는 사회적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제변화를 자신의 자리에서 분석하면서 그의 해결을 도모하는 운동이다. PC통신게시판에 글을 열심히 올린다고 뉴미디어를 이용해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자고 열심히 떠드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정보운동도 생활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다.

출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키나 누르세요

별첨자료 III

정보화 사회와 시민운동

-- 김형준 (바른정보 대표)

정보화 사회와 시민운동

김 형 준
(바른정보 대표)

◆ 들어가는 말 :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는 주제중의 하나가 정보화사회이다. 그러나 정보화사회가 무엇을 가르키는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그리 흔치않다. 오히려 언론의 영향으로 "어쩐지 좋은 세상일 것 같은 꿈" 만 갖고 있다. 얼마전 언론이 앞다투어 환경문제를 다룬적이 있었다. 환경열풍이 지나간 자리를 메우고 있는 주제가 "정보화"이다. 각 신문마다 고정란을 만들어서 수많은 정보를 쏟아붓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행위가 바른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인터넷은 지금까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지구공동체], 즉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게끔 한다. 그러나 언론이 만들어내는 인터넷,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보화사회란 장미빛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가 신문을 받아본 그 순간 이미지, 음성 게다가 행동화상까지를 세계 어디서나 받아들 수 있고 집안에 앉아서 학교공부를 하고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치료도 받는 "볼 일보러 나간다"는 말대신에 "볼 일보러 컴퓨터를 켜다"라는 말이 맞는 사회가 펼쳐진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사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다른 의문을 가진다. "정보화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은 과연 그렇게 변화할까?"이다. 소득수준, 직업, 성별의 차이가 정보이용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실을 보면서 "정보화사회는 우리 사회에 가득찬 모순을 확대심화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정보화사회를 Computopia로 생각하는 많은 낙관론이 있는 반면 영화 [브라질]에서처럼 Big Brother가 모든 구성원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그리는 비관론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회발전을 위해 조그만 땀 한방울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사회는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되새겨 볼 경우, 낙관론에 서있는 사람이든 비관론에 서있는 사람이든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는 길속에서 사회운동/시민운동이 나름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정보화 사회는 반드시 장미빛은 아니라는 사실은 서로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 "경쟁력강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그럼,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시민운동은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할까? 우선 우리 사회에서 거시적으로 진행되는 정보화의 모습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정보화사회 구상이 국가정보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를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초고속 통신망사업이다. 행정전산망 등 중요한 국가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정보통신 전문 주무기관으로 체신부 산하에 한국전산원이라는데서 발간하는 [1994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 국가정보화를 다음의 3가지, 즉, "국가기관 정보화", "산업 정보화", "지역사회 정보화"로 구분하고 있다. 그럼 정부는 국가기관 정보화와 산업 정보화와 지역사회 정보화를 어떤 관계로 설정하고 있을까?

국가가 말하는 "지역사회 정보화" 부문은 ①교육 및 연구분야의 정보화, ②국민생활의 정보화 그리고 ③지역 정보화이다. 국민생활의 정보화는 전화,팩시, PC통신과 미래통신서비스로 원격검침 서비스, 문자방송, 쌍방향 CATV, 화상회의, 이동통신을 들고 있으며, 다시 국민복지 정보화로서는 보건 및 의료체계 정보화, 약무체계 정보화, 식품위생체계 정보화, 의료보험 및 연금 정보화, 사회복지시설 정보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하는 것은 삶의 형태가 아니라 삶의 질이며, 삶의 질을 규정하는 부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 하나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부가 말하는 지역/사회 정보화란 삶의 형식만을 말하고 있으며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문제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결국 국가정보화, 정부의 정보화사회론은 자본의 경쟁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하며 부차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몇가지 과제들은 추진하지만 이 또한 "경쟁력강화"라는 기본목표를 벗어나지 않는다. 요즘 Super Highway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초기에는 EFF등 시민사회단체가 많은 발언권을 행사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국적기업이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경우도 큰 편차는 없지 않을까 한다. 결국 국가가 말하는 정보화사회란 "인간중심의 정보화사회"라는 미사여구에 국가기관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이 강조되는 사회일 수밖에 없다. 포디즘(Fordism)은 생산력을 발전시켰지만 인간을 컨베이어벨트의 노예로 만들었던 것처럼, 정보화(Information)는 경쟁력을 강화하였지만 인간을 컴퓨터의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 "끝없는 상업화로"

정보화 사회를 "정보의 비중이 다른 어떤 것보다 커지는 미래사회" 혹은 "컴퓨터 관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처리매체를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박순백, 한글과 컴퓨터 이사)"라고 말하는 분처럼 순수하게 서비스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PC통신은 우리가 가고 있는 정보화사회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이다.

우리나라의 PC통신은 한국PC통신과 데이콤등 정부재투자기관이 제공하는 VAN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 물론 초창기 시설BBS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는 거의 사회적 영향력이 없다. 그런데 95년을 기점으로 PC통신서비스에 변화가 일고 있다.

우선은 재벌들이 PC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 삼성, LG, 한진 등이 서비스준비에 한창이고 앞으로 참여업체는 계속 늘어갈 전망이다. 또 하나 새로운 변화는 공공정보보다는 상업성을 의식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이텔이 성인잡지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천리안은 성인전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상업화의 전주곡이다.

우리앞에 "상업화", "비인간화"된 정보화사회가 놓여져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수레바퀴는 이곳을 향해 가속을 붙이고 있다. 이제 이에 대한 사회운동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 정보기반의 조직(Information-Based Organization)으로

비록 현재 나아가고 있는 정보화사회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식기반", "정보기반"이라는 기본성격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현재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은 얼마만큼 정보기반 조직인가?

아직도 많은 시민운동체들은 스스로의 성격을 인적조직으로만 한정시키고 있다. 기업이나 은행이나 다국적기업들은 세계화된 규모로 정보를 구축, 활용하면서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과 맞서 싸우는 시민운동체들은 나라의 한계, 지역의 한계,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가 가져오는 많은 이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뒤떨어진 조직이 되고 있다.

최근 많은 시민운동 조직들이 PC통신을 운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크게 다루어졌다. 경실련, 공선협, 전교조, 민예총이나 열린정책회의(하이텔), 참세상에서 포럼을 개설하고 있는 10여개 단체 등등이 그런 부류이다. 그러나 PC통신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해당조직들이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조직으로 변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아직도 대부분의 조직에선 활동가 대부분은 컴맹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곳조차 별로 없다. 또한 말이 통신망이지 조직내부보단 조직외부(VAN사업자에게 정보제공)를 위한 통신망이고 관리 또한 한두명이 전담하고 있다.

이미 빌케이트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도구(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로서 PC를 말하는데 아직도 타자기를 대신하는 도구로 PC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시민단체의 정보화정도를 보여주는 표식이다. 그렇지만 시민운동 조직이 정보기반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미국의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은 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을 구축하고 각 지역의 조합원정보가 변경될 경우 바로 중앙컴퓨터와 연결하여 메인프레임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갱신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

CWA(Communication Workers of America)는 중앙과 전국 각지의 지부간에 유선망을 구축하여 투쟁소식을 전하고 Database를 구축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예들이 정보기반의 조직을 통한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한국통신노동조합이 초보적 수준이긴 하지만 정보기술과 조직을 결합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제 시민운동 조직들이 정보화사회에서도 유의미한 활동을 하기 위해선 PC조작(PC-Handling), Network, Data-base가 결합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야 최소한 기업이나 관료조직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민운동 조직이 설정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은 없지만 이를하여 "시민사회 정보화"라 해보자.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보화중 지역사회정보화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립된 - 비록 하나의 체계로 정립할 수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 보편적 인권, 환경, 평등, 경제정의의 가치와 "정보민주주의"를 기본목표로 추진되는 정보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통신인가 정보인가?

네트워크 혹은 정보화를 말할 때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말이 두가지 있다. 바로 통신과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두개의 개념이 조화롭게 통일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먼저 현재의 모습을 간략히 살펴보자.

(1) 문서 수발을 위한 통신망구축이든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위한 통신망이든 현재 사회단체가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상업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동호회 / CUG형태를 이용하는 것이다. 94년 학생회와 몇몇의 교사 / 의료인들 사이에서 추진되어온 통신망구축이 95년 중반을 기점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한국통신노동조합 쟁의의 위력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1세기 프론티어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단체들이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시민단체의 경우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는 전교조, 한국통신노조, 데이콤노조, 전지협 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업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엔 AFL-CIO가 Comuserve에 통신망을 개설하였고 대부분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구축된 통신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80년 팩스가 광범위하게 사회단체에 보급되면서 우편이나 인편으로 발송하던 문서수발을 팩스가 대체하였다. 그러던 것이 89년 전교조결성투쟁이 전개되면서 천리안 전자우편시스템을 이용한 사회단체 및 사회단체내부의 문서수발/보고체계가 급속히 형성되었다.

팩스의 역할을 점차로 상업네트워크의 전자우편시스템이 대체하여 나갔고 최근에 전자게시판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수발과 데이터베이스 제공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Electronic Newsletter(전자신문)이 보편화되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양의 정보가 보다 빨리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직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통신망이 조직발전에 가장 크게 힘을 보탬 수 있는 것은 정보의 원활한 유통뿐 아니라 조직내의 다양한 성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이런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 상업적 판매를 위한 정보화인가 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한 정보화인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가 돈이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많은 DB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렇지만 Cyber space라는 좌판대에 놓인 상품구색을 살펴보면 시민조직들

이 정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다. 현재 가장 많은 DB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리안의 경우 정보의 대부분은 생활/문화, 경제/경영 등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시민운동 조직의 자료나 Knowhow를 얻고 싶을 땐 전화를 해서 자료를 주문하거나 방문해서 자료를 복사하는 것 외엔 별로 방법이 없다. 그만큼 시민운동 조직은 정보유통이라는 측면에서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귀에 익은 Amnesty International이나 Greenpeace 등은 인터넷을 통해 database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고 특히 시의 경우 초보자용 인권가이드를 CD-Rom으로 제작 보급하여 인권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몇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12개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구성된 열린정책회의가 제공하는 있는 정책정보 [온라인정책회의]가 1년을 넘어서고 있고,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노동정책연구소, 지탁연, YMCA, 기장노동상담소 등이 PC통신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정보제공자이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지만 PC통신 사업자들을 매개로 한 정보화(상업적인 유용성이 있는 극히 일부에 제한)이기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Knowhow의 정보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자주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사회운동이 사회 공공적인 요인이라고 할 경우 상업네트워크에 비싼 - 물론 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 이용료와 정보이용료를 지불하고 일반시민들이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상업네트워크의 상업적 이해와 시민단체의 정보시스템구축 요구가 부합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IP화가 결국은 시민운동의 상업화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광범위한 시민 네트워크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순간까지 시민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두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는 YMCA와 UNDP(유엔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KSDN(Korean Substatible Development Network의 약자로 전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SDN의 한국지부이다)의 설립이다. 이는 환경 관련 Network로서 추진되고 있고 외국과 국내 NGO 간의 교류 창구 역할을 부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바른정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세상이다. 시민네트워크(Civic Network), 진보적 통신(Progressive Communication), 이용자 자치네트워크(Autonomous Network)를 지향하고 있고 현재 20여개 시민운동 조직들이 BBS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운동 조직의 교류, 정보 교환 및 토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곤 할 수 없고 아직은 실험적이다. 그렇지만 이런 방향으로 정보화전략이 잡혀야 한다는 것은 외국의 경험이나 국내의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명확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현실가능한가? 독립네트워크 혹은 시민네트워크 운동이 쉽겠는가? 전국적인 규모에서 상업네트워크와 경쟁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본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른바 전자 열도 프로젝트이다. 전자 열도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는 코아라 네트의 사무국장의 글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1월1일부터 개시될 신서비스로서 전자네트워크 다국 지역 열도 프로젝트/전국적 전자근린사회(National Electronic Neighborhood)구상'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코아라는 북해도의 오로라 네트와 91년 1월부터 포팅에 의한 상설 전자회의실 공유를 해왔다. 우리의 전자회의 시스템은 '발언'과 '응답'을 조합시킨 2차원방식으로서, 일차원의 전자게시판방식에 비하여 더욱 좋은 그룹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시스템이지만, 그것만의 포팅시스템 개발이 어려워져 고전하였다. 그것을 인텔이 Tri-P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구조로서 코아라-오로라 사이에 1년간의 운전실험을 무사 달성.

포팅에 자신을 가지게 되어 이에 일본열도 전체를 생각하고 싶다. 일본열도에 산재되어 이체는 복수의 지역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전자회의실을 공유하고 싶다. 전자네트워크안에서 전자일본열도를 만들어보고 싶다. 어쨌던 홋카이도(오로라), 도호쿠(코미네트 샌다이), 주우부(주니치네트), 주고쿠(주고쿠 데이터서비스), 큐슈(코아라)로 일단 생각해 보고 싶다.

바라건데 동경도 하나의 지방으로 보고, 각각의 지역네트가 지역의 특색이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며, 서로가 네트워크된다면, 시민은 간단하게 지역네트에서 느끼는 근린사회생활 그대로 열도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동경중심의 전국네트워크와 달리 다국문화의 새로운 일본열도가 되지 않을까, 서로의 지역문화를 존중 존경하는 전국적 전자근린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당연히도 (코아라는 미국의 산타모니카 PEN과도 상설의 포팅 전자회의를 가지고 있다)그 앞에 국제적 전자근린사회도 가능하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는 참세상의 존재 때문에 가능하다. 참세상이 지난 3년동안 추진해 온 성과는 시민네트워크의 가능성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기 위한 기술의 확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정보화가 기술을 전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술을 시민운동의 자산으로 습득했다는 것은 무척이나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한 지역차원의 시민 네트워크의 형성 그리고 이의 전국적인 연결,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대안이 아닐까 한다.

◆ 국제연대와 국내시민네트워크의 관계?

국경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통신을 통한 시민운동을 주장하는 전세계적인 조직인 APC (Association of Progressive Communication)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우리나라를 연결하려는 노력 또한 시도되고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일까?

현재 국내 네트워크가 전제되지 않은, 우리 말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국제 네트워크의 참여는 외국NGO정보의 단순한 이용 이상은 아니다. 현재 많은 사회단체와 개인들이 APC coonference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은 국내NGO가 적극적으로 국제NGO와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결국 어떤 APC conference를 뒤져봐도 한국에서 발송된 한국사람이 보낸 news는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시아 네트워크의 한 일원으로 APC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한국의 시민 네트워크로써 APC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결국 APC로 포괄되는 전세계적인 전자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모색하면서 - Membership 혹은 Partnership Network로써 - 아시아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그룹 (APC내의 conference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발제에서 잠깐 언급했던 강영구, 백옥인씨의 입장비교를 비교하여 정보화사회에 대한 견해를 소개해주기 바란다.

= 강영구씨는 소유개념의 기본 잣대에서 볼 때 정보의 독점이 문제라고 본다. 즉 정보를 둘러싼 소유관계가 사회관계의 모순을 만드는 핵심으로 이후로도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며 소유불평등이나 독점적 소유관계의 불평등이 정보화사회에서도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 백옥인씨는 정보의 많고 적음이나 정보기기가 있고 없음은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정보는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누구나가 평등하게 이용하게 할 수만 있다면 된다고 본다. 사회적인 피시통신이나 인터넷사용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교육을 일반적화 시키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정보화사회에 대하여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즉 사회구성체의 관점이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든 정리한 바가 없는데 이에 대해 전략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아직 정보기본권을 가지고 투쟁하는 집단이 없다. 정보공개법을 가지고 경실련과 참여연대, YMCA가 건드린 적은 있으나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행정정보공개법이라는 시행령으로 발표된 것을 이제는 공개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사람과 사람을 통제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소유의 문제를 제기하여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보기본권운동이 전혀없다고 보면 된다. 유일하다면 조선일보사의 '21세기 정보화 포럼'이 기업체, 학계, 관계가 참여하여 기업과 자본의 입장에 선 정보화운동을 하고 있으며, 현실변화를 이끌어가는 자본, 언론, 테크노크라트 등의 이론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백화점식으로 다 나서는 것은 반대하며 본질적으로 그럴 문제는 아니다.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며 연구 및 정보통신에 종사하는 지식인, 엔지니어 등의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우리도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EFF는 LOTUS 1.2.3를 만든 사람들이 10만불씩 투자해서 만든 재단으로 해커 - 정보사회주의자들이 제일 많다 - 를 잡아갔다 해서, 그러한 탄압에 대항해서 만든 운동체이다. 정보시민권이 미국식 개념이라고 할 지라도 그들은 이를 위해 투쟁하며 유스넷 카피라이트에 대한 반대를 조직하고 있다. 참고로 원고앞에 쓴 copleft도 copyright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다.

2. 앞으로도 인터넷이 지금처럼 개방형이 될 것인가?

= 상업화될 것이다. 유닉스라는 시스템이 주는 개방성 프로그램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어 현재로는 돈을 번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폐쇄된 분절적인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3. 영어사용이 인터넷 사용을 막는 요소가 아닌가?

= 궁극적인 장애는 아니다. 국민학생이 일본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나 언어의 문제는 없다. 인터넷 역시 그래픽이므로 신세대들은 이미 이런 환경에 익숙하다. 앞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더욱 그럴 것이다. 현재로는 유스넷에 게시판이 만개도 넘으나 한글은 100개도 안된다. 언어주체성의 문제도 있으나 사회경제적인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4. PC-com이 확대되면 온라인상의 인간교류가 이루어지는 데 사회운동이 터미널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PC통신의 발달은 사회운동의 한계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 투쟁방법은 보면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서 대립하는 두 지점이 만나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상호간의 대립의 영역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엠네스티 인터넷소셜에서는 메일보내는 것으로 압력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현재도 미국은 국내외적으로는 이 방법을 많이 쓰며 이것이 여론으로 형성된다. 그것이 투쟁의 수단이 기보다는 여론을 보여주는 한 수단으로서는 유효하다.

5. 피시컴의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영상콤을 흡수하지 않겠는가?

= 뉴미디어가 발달하면 종이매체는 없어지고 통합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공중파를 받을 수는 없다. 즉 공중파를 보낼 수는 있어도 받을 수는 없다. 보내는 신호와 받는 신호가 다 달라야 하는 장애를 극복해야 인터랙티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유선은 통합되어가고 있으나 무선은 이러한 기술상의 장애로 불가능하다. 공중파는 디지털이므로 어렵지만 니그로 폰테는 위성방송까지를 포함하여 앞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전망한다.

6. 국내에서까지도 통신을 이용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뎀민주주의 텔레민주주의를 직접 참여민주주의로 얘기하고 있는 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 디스토피아를 얘기하는 사람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가상 허구의 한계를 거치지 않고, 대중여론조작이 오히려 훨씬 쉽지않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세뇌받을 수는 없으나 편협해질 수는 있다. 지금처럼 매스미디어에 의한 일방적인 공세는 피시통신이 주된 매체가 되어 일반화되면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개인은 취사선택을 할 것이므로 불가능하겠지만, 사

회구성원 각자가 개개인화되므로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다양한 고민과 관심사를 어떻게 여론으로 모아내 사회의 주된 관심사로 만들어내는가는 과거와 다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두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는 데 미국의 텔레데모크라시를 애 기하는 자 스스로 사회 기득권을 만들어내어 그것으로 출세하려는 자일 가능성이 있고, 다만 과정상으로 볼 때 이것이 형성되려면 기존의 체계가 깨어져야 하므로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지 어렵지 않을까? 차라리 대의제 보완형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미국의 경우 낮은 차원의 지자체 등의 경우에 실험적으로 P.C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기존 권력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져야 하므로 환상이 아닐까 본다.

7. 사회운동의 네트워크형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 정보화사회에 대해서 조직이 어떤 형태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NGO 사회운동들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현실에서 인적인 연결 관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능력이 있는 조직적 변화가 필요하다. 조직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뒤쳐지지 않고 그것을 조직의 강화로 도입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시가 타자기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정보의 가공으로 특정한 투쟁대상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의견을 모아내는 것으로 받아낼 때만이 발전가능하다.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측면은 컴퓨터와 컴퓨터의 연결로서 오에스, 포터블, 모뎀 등과 같은 개방성이 반영되는 기술의 도입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시민운동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일 것이며 현실사회에서와는 달리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결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미국이 네트워크의 환경, 정보화 추진에 가장 앞서 있다. 60년대부터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알파넷에서 국방성의 네트워크, 7-80년대의 학술적인 네트워크에서 이제는 대자본이 참여하는 상업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대학의 학술전산망이 지역사회의 공적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용도 하지 않지만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나라의 행정, 학술전산망의 이용은 소수속되어 그것을 운용하는 특수한 사람만 사용하고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것은 없고, 자기가 천리안, 하이텔 등의 상업서비스 이용료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업네트워크의 이용 이외에는 없다. 여기서 메일을 받고자 하는 자가 어떤 컴퓨터, 어느 지역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그사람의 주소만 알면 메일기능으로 보낼 수 있는 메일이 가지는 보편적인 기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1.0가 어느 상업망과 관계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막혀있고 폐쇄적이며 많은 생각들이 상업네트워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가 단절된 것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을 다시 한번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니 이는 아이러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의식이다. 그리고 상업망이므로 거의 몇백건이 합법적인(?) 검열로 잘려나가고 있으나, 나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잘라내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음이 더 문제다. 이러한 조건을 극복하여 통신과 정보화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한 지역 차원의 시민네트워크의 형성과 이의 전국적인 연결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가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대안이 아닌가 본다. 퍼블릭엑세스는 많은 돈이 들어감으로 차라리 네트워크의 형성을 우선 고려해 보아야 한다. 퍼블릭엑세스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통신법이나 자본의 파급력을 고려해 볼 때 FM라디오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출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키나 누르세요

별첨자료 IV

제 3회 정보통신 토론회 자료

정보화사회와 여성

발재 : 이명신(전 천리안 여성동우회 시삽)

장여경(통신연대 대표)

정보화사회와 여성

이명신(전 천리안 여성동우회 시삽)

정보화와 통신을 따로 떼어뜨려 생각할수 없다. 정보는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와 통신을 합쳐 정보통신의 개념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정보가 의미있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보의 목적과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자신의 위치에 맞게 정보를 찾아낼수 있거나 통신을 이용할수 있는 사람은 그 수준의 학이나 지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훌륭한 정보화를 이루어낸 것이다. -----

1. 정보화하면 뭐가 좋은거야?

1)게으른자의 천국...죽지않

인텔리전트라이프-폼쇼핑 홈쇼핑 통신망을 통한 정보교환

;남성관료사회의 전유물이었던 과학기술의 결과물들을 가정에서

2)못생긴자의 천국...선입견, 죽다.

3)새로운 땅, 새로운 권력 창출..서부시대의 초공간적 부활

;동호회 시습, 인터넷, 비교적 능력에 따른 평등

4)평등세상...사회적 소외계층에도 기회가;직접적 물리적 폭력의 위험이 적다.

;정보화의 장점들, 현재적으로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장점이 아니다. 상상해보자면, 현실세계와 비교하여 이런 장점이 있고, 현실세계에 비해 이런 점들을 본인의 결실역력에 따라 보다 쉽게 이루낼수 있다는 정도이다.

2.정보화는 정말 돈이다.

1)인터넷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2)통신으로 이익본 사람 손들어봐!...이용료 대비 정보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

정보의 독점, 부익부 빈익빈 문제

3)못살겠다 갈아보자...컴퓨터의 변신은 무죄?

3.엘리트정보화와 아줌마정보화

-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1)폼 좋다 인터넷...정보의 보고?

2)아직도 통신을 안하세요?...왜곡된 통신문화;유능한 사람은 통신을 안한다.

3)주부도 경쟁력이다?...구관이 명관이다;수작업 가계부의 우월성

...누구에 의한 정보화인가가 중요

4.결론 - 엘리트정보화, 겁낼것 없다.

1)살아남기? 살아주기!

...알고 안하는 것과 모르고 못하는 것.

2)여성 서부개척시대 필요

...혹시 나의 당일수도 있다.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이 능률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먼저 정보를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 더욱 조직적으로 낭비가 행해질 수도 있을 것. 여성은 방어적 접근이 아닌 공격적 접근이 필요.

<자료 : 이대 학보사 기고문>

짧은 역사지식으로 생각해보면, 산업혁명기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기계의 등장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 '전환기'의 '획기적 변화'란 늘 그렇다. 강자에게는 이익을, 약자에게는 존재기반조차 파괴할 수 있는 '변화'를 안겨준다. 지금의 정보화도 여기서 예외가 아닌 듯하다. 정보화로 운영수익이 떨어진 도량피는 장애인도 생활고로 자살했고, 여성 사회참여의 해법으로 생각되었던 제택근무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만 간다.

게다가 현재의 정보화는 가사자동화와 같은 운명에 처할 우려도 있다.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가사노동자동화인가를 따져보면, 가사자동화는 여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개 돈벌이의 수단이었다. 결국 가사노동 시간은 60년전에 비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냥 내버려둔다면, 정보화라고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자, 그렇다면 우려를 확인한 우리 여성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기계파괴론자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

다행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정보화가 갖는 몇가지 특성들이 여성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보화는 그 '상호교류'라는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신과 결합된다. 그동안 무가치하게 여겨지던 여성적인 경험과 생각들은 상호교류를 통해 고급정보로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여러가지 제약과 단절로 사장됐던 여성의 잠재력과 욕구도 각종 정보와 결합되면서 분출구를 찾게 된다. 통신속에서는 나이, 성별, 종교와 관계없이 동등한 발언권이 있고, 아무도 타인을 현실세계와 같은 강도의 폭력으로 억압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정보통신세계는 남성의 영향력(독점력, 고정관념)이 비교적 적은 곳중의 하나이다. 사용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대부분 사고가 합리적이고, 현실세계의 모순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부당한 폭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네트워크상에 새로운 질서와 권력을 꿈꿀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여성정치력의 강화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계의 오랜 목표였지만, 현실의 장벽이 너무 견고해서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여성자신의 정치력이 약하기때문이기도 한데, 네트워크활동은 이 약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게 한다. 여성들은 네트워크안의 각종 논의와 동호회운영에 참여하여 비판자들과의 싸움속에서 실무능력을 기르고, 이 속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내용과 기반을 토대로 여성의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적 진출이 가능하다. 현실세계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앞에 나서지 못했던 여성들도 약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용기를 내 참여할수 있다. 천리안 주부동호회 회원의 폭발적 증가는 여성들의 잠재적 정치참여 욕구를 확인하게 한다.(얼마전 통신에서 벌어졌던 주부중심의 남양분유광고 항의서명운동이나 우조교패소 항의서명운동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활동의 단초를 보여준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통신인구 100만명중 여성은 10프로 내외이고, 이중 여성이 통신내의 동호회 회장등의 지위를 맡고 있는 경우는 아주 적다. 통신상에서의 동호회운영진은 일종의 권력이 다. 동호회 운영진을 여성이 차지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권력'

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정보통신의 공간에서 권력을 창출한다는 것은 현실세계의 권력만큼 대단하지는 않다. 사이버세계의 주인공이 진정한 힘을 가지려면(혹은 갖게되면) 결국 현실세계로 돌아가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회전술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현실세계에서 밀려난 여성들은 사이버세계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둘째, 여성주의를 널리 전파하여 여성의 지위를 최대한 확보하고, 여성문제를 가시화하여 단결의 토대를 마련한다. 남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에게 여성주의를 전파하여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은 여성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 가시적 전선으로 만드는 일조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여성주의의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있다. 이들은 온갖 언어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향유적인 생각들을 표출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어떤 여성은 여성의 단결을 위하여 많은 통신네트워크중 하나는 여성전용망으로 점령(배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리고 그 대립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성의 단결을 저해하는 사이버페미니스트를 가려내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문제를 더이상 숨어있는 문제로 얼버무리지 않고 당당하게 전선이 있는 하나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째, 사이버공간에서 훈련된 여성들이 여성운동으로 흡수됨으로써 여성운동의 단결의 폭과 깊이가 넓어질 것이다.

지하철노조나 한국통신노조의 활동을 보더라도 네트워크는 단결에 효과적이고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금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해도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공간에서 일정한 커리어를 쌓은 여성이 여성운동계와 연결된다면 정보사회에 일찍 눈뜬 네트워크상의 여성들을 여성운동계의 성과와 내용을 토대로 하나로 묶어낼수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 해외 여성 네트워크와의 연결은 다른 나라 여성의 삶을 손쉽게 접하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문제의식에 확신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자신의 구미에 맞게 정보를 찾아낼 수 있거나 통신을 이용할수 있는 사람은 그 수준의 차이나 지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훌륭한 정보화를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컴퓨터를 둘러싼 현란한 지식과 매니아적 관심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정보화를 노동의 측면이 아니라 권력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경제의 측면이 아니라 단결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여성들은 당장 실험에 들어가자. 사이버세계, 컴퓨터 정보화의 세계가 자신의 적성에 맞을수가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서부시대의 선두에 설 자격이 생긴 것이다.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해졌다. 같은 생각을 하는 여성끼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사이버세계의 권력을 거머쥐고, 그런 여성이 현실세계의 여성운동과 합류하고, 그래서 단결의 폭과 깊이가 커질때 정보화는 여성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보화사회와 여성

지식인연대 제3회 정보통신 토론회

장여경 (통신연대 게시판지기, 전 여성문화예술기획 간사)

이번 주제는 1994년 있었던 지식인연대 토론회의 주제들과 그로 촉발된 논의들의 연장선 상에 있다. 그리고 현재의 입장에서 소위 '정보화 사회'를 도입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한 지식인의 여성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실질적 과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먼저 정보화 사회의 각종 환상을 깨는 것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유토피아적 정보화 사회론, 의도 비의도적으로 자본의 거대한 산업구조 (수직구조)을 위한 이대승로 극복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각종 정보화 프로젝트 등 때마다 과거 인류 역사를 다다랐었던 유토피아론이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고 사회변혁의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언론과 미국 정부의 정치, 학계 사람들로부터 촉발된 유토피아적 정보화 사회론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운동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절에서 운동 단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구적인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즉 PC통신에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웹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보통신기술은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자본의 핵심기술로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변화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지경에 이르러 기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주요 모순관계인 임노동관계로부터 노동의 주체인 여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보화'가 끼칠 영향을 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며, 따라서 추세를 외면하거나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즉, 이제는 단순한 '낙관론' 혹은 '비관론'으로부터도 한발짝 더 나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정보화사회의 의도성에 대한 적극적인 통찰과 각 영역에서의 대응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정보화사회에 대한 언급들에 대해 여성들이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망들 때문이다. 먼저 국가정보화백서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화사회를 살펴 보자.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은 사회의 경제에 넓게 확산되고 있다. 가정생활, 문화생활도 폭넓게 정보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정보화가 가정생활에 가져다 줄 가장 큰 혜택은 가사노동의 자동화이다. 전화는 물론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통신기기들이 가정생활에 이용됨으로써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더 중요으로 가정생활을 여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각종 가사기구들은 점차 청소, 요리, 세탁 등의 일을 대신해 주게 될 것이다. 게임머신을 비롯한 각종 오락기구는 개인의 여가시간을 더욱 흥미있게 해 줄 것이다. 가사자동화로 해방된 주부와 사무자동화로 산업사회에서 업무의 질이 향상된 남성이 가정에서 보다 차원 높은 자기 실현을 위해 여가시간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 가사자동화는 단순히 편리함 이상의 것을 제공해 준다. 가정의 정보화가 더 진행된다면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가족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성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가사에서 해방된 여성들은 다양한 취미생활과 개인생활을 누릴 수

가 있으며, 동시에 경제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성에 대한 남녀의 역할분담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소멸되어, 함께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남녀평등으로 발전될 것이다. 또한 재택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소비중심의 가정의, 직절적인 생산기능을 포함한 복합적인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1994 국가정보화백서 '정보화의 발전 방향')

21세기에는...소가족에 따라 가족구조의 그 기능이 변화하여 가족의 노인 및 아동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욱 확대되어 과거 여성이 가정에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한 복지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6 국가정보화백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보화')

이 언급들에서 가장 아이러니칼한 부분은 성역할에 대한 언급의 불일치이다. 여성에게 정보화사회와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사회가 규정한 여성의 가정내 성역할을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수행하도록 보장해줄 것이며, 동시에 주로 남성의 성역할로 보장되어 있는 가정 밖의 경제 생활에도 참여도 확대시켜줄 것이라고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 자체의 스테레오 타입을 주요 여성 억압의 기계 중 하나로 그간 기능해 왔던 사실에서, 가정 내의 여성의 성역할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정보화사회'가 과연 궁극적으로 여성들에게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성별분업 자체를 강화하는 기계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의심해 볼 만 하다.

또한 국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정보화' 사업인 만큼, 요즘 진행되고 있는 각 분야별 정보화 과제들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비하여, 여성과 관련한 분야에는 어떠한 정책적인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여성문제에 관한 한 '정보화'는 국가에게도, 국민에게도 아직까지 미려한 구호와 신기루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이 보는 여성 노동시장의 미래는 대체로 밝다. 우선 노동의 양보다 기술, 창의력 같은 질이 중요한 시대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경제 구조 자체가 정보화, 소프트웨어화에 따라 육체 노동보다는 지적 능력, 미적 감각, 상상력이 중시된다.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경제 구조의 소비 유형으로 바뀌게 되면 단연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고학력화, 여성화, 고령화는 21세기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을 상징하는 핵심어이다. 한국은 결혼한 여성 1인당 평균 출산 자녀수가 1.7명(95년)으로 이미 인력 부족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남성 청년층의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으로 보여 기업들은 싫든 좋든 노령자와 여성을 포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성개발원의 성별 노동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남성의 경우 94년 76.4%에서 2000년 75.6%, 2010년 76.6%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은 94년 47.9%에서 2000년 50.7%, 2010년 55.1%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로 여성의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기존 여성의 재취업 욕구가 증대하는 등 전체적으로 주노동력층(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거기다 육아 관련 정책들이 실효를 거둔다면 여성들의 퇴출 압력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서사저널 1996년 5월 9일자)

정보화와 여성에 대한 언급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와 같은 여성 노동 시장에 대한 긍정적 관측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여성 노동에 관한 논의는 계속 지속되어 왔지만 그 전망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점이 이제는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통찰해야 할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과연 과거 되풀이되어 왔던 기술과 여성의 관계와 질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이냐 하는 부분이며, 지금의 '정보화'에 힘입어 고질적으로 누

적되어 온 수많은 여성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다.

가사노동 하나만 보더라도 가전기기들이 고도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들이는 가사노동의 노력과 시간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기도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은 여성들의 남은 시간과 노력이 자기 자신의 해방을 위해 돌아갔느냐는 부분이다. 사실상 기계의 도입으로 벌었다고 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여성 자신의 몫이 아니라 더 복잡해진 기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투입되고 소비되어 버렸다. 이 문제를 정보화가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여성 노동의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실제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했다는 관측도 있고 신문마다 대기업의 여사원 채용 광고를 익숙하게 보게 되지만, 사실상 여성 노동인력은 점점 더 산업예비군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격차로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구미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보다도 큰 것으로 조사돼 경제활동에서 성차별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사시주간 슈테른지는 최신호에서 다른 각국의 남녀 임금격차분석기사에서 한국어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53.5%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UN통계를 인용한 이 기사에서 한국은 통계가 잡힌 20개국중 방글라데시(42%)를 제외하고 최하위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구미 선진국들도 여성임금은 남성의 70-80% 수준에 그치고 있어 경제활동등에서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선일보 95년 5월 XX일자)

이 일군의 분석들은 많은 부분 '결혼한 남성 노동자는 아내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므로 여성 노동자보다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한다. 이에 따라 여성은 전학 남성과 경쟁하지 않는 미숙련, 저임금 직종으로 주변화하고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역압적 구조적 장치로 인해 여성 노동력에 대한 주변화는 물론, 동등한 취업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대 노동의 유연화로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임시직 등의 불안정한 노동력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메우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 보여지듯이, 여성 노동 문제가 정보화로 인해 해결된다기 보다는, 최근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점점 더 주변화하는 노동력과 심화되는 고용 문제가 여성 노동 문제를 한층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또한편으로 제기되는 것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여성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여성 운동을 발전시키자는 주장이다. 물론 PC통신으로 대표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 및 기술의 발달이 장애인들에게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 및 생활공간의 확장을 기대하게 하듯이 여성들에게도 그렇게 기여하고 나아가 일상정치, 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절은 문제의 네트워크가 어떤 세력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직시와 평등한 네트워크를 위해 여성들에게 주어진 불평등한 조건들에 대한 극복 노력이다.

즉, 교육기회의 불평등, 접근에 있어서의 불평등, 과학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 인터페이스에 의한 불평등, 효용성에 대한 지각 능력에 있어서의 불평등,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서의 불평등, 온라인 성희롱 등이다. (주:1)

특히 이런 종류의 주체에 대한 논문들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여성 access의 확충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 시점에서 부족하나마 여성운동의 개입지점에 대해 제안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무엇보다 지금의 여성 노동운동 및 문화 운동 등 기존의 여성 운동이 보다 더 투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기서 소위 '정보화'를 통해 더욱 주변화되고 소외될 여성 노동과 여성 문화적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긴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둘째, 테크놀로지 활용에 있어서 보다 이점을 위한 access 경로의 확보와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최근 Feminet 등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으며, 기존 상업망과 독자적인 여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여성들이 네트워크에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셋째, 온라인 성상충화, 온라인 성희롱, 검열 등 전반적인 정보운동의 이슈에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분분한 영화 사전심의 철폐와 독자적인 등급제 수립에 있어서 디약하나마 여성들의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검열 철폐와 음란물에 대한 기준 수립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시급하다.

(주1) 정보화사회가 과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유의미한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분분하다. 개1회 토론회에서 울산대 조형재 교수는 '자유화와 재규계화' '정보고속도로' '표준화와 지역통합'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성으로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화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최근의 크고 작은 기업들간의 M&A, 미국의 표준 독점과 같은 추세에 보다 더 주목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본질을 자본주의적 모순 해결 방식으로서의 거대한 산업구조 개편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2) Hoai-An Truong, Members of BAWIT(Bay Area Women in Telecommunications), Gender Issues in Online Communications, 1993.

**The internet was 84.5%
male and 82.3% white.**



Until now.

Guerrilla Girls have invaded the world wide web.

Join us.

<http://www.voyagerco.com/gg>

email: guerrillagirls@voyagerco.com

